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한 은 미

2012년 8월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도교수 김 동 전

한 은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한은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8월

Development of children's education program in
Jeju National Museum using 『Tamnasullyeokdo』

Han Eun-mi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2 . 8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성과 분석 및 연구방법	3
II. 『탐라순력도』의 내용 및 교육프로그램 분석	7
1. 『탐라순력도』의 내용과 역사적 가치	7
1) 『탐라순력도』의 편찬과 내용	7
2) 『탐라순력도』의 역사적 가치	10
2. 국립제주박물관의 『탐라순력도』 교육프로그램 분석	13
1)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13
2) 교육프로그램의 분석	19
III. 『탐라순력도』의 교육요소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25
1. 어린이를 위한 『탐라순력도』의 교육요소	25
1) 교육대상	25
2) 학습주제 및 내용	30
3) 학습유형 및 접근방법	38

2. 『탐라순력도』 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	41
1) 전시 감상프로그램: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	41
2) 초등학교 연계프로그램: 박물관에서 만난 탐라순력도	48
3) 자율 참여프로그램: 우리는 탐라순력대!	51
IV. 결론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6

<표> 목차

<표 1> 『탐라순력도』 43장면 (그림 41면, 서문 2면)	8
<표 2> 2011년도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내용	15
<표 3>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장·단점 분석	20
<표 4>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체계	27
<표 5>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지역 관련 단위	28
<표 6> 『탐라순력도』의 내용별 구분(서문 제외)	31
<표 7> Hooper Greenhill의 7개 요소별 통합적 접근방법	40
<표 8>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 학습계획안	43
<표 9>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 활동지 구성내용	45
<표 10> ‘박물관에서 만난 탐라순력도’ 학습계획안	49
<표 11> ‘우리는 탐라순력대!’ 학습계획안	53
<표 12> ‘제2기 우리는 탐라순력대!’ 3차시 심화학습내용	57

<그림> 목차

<그림 1>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순력도실 내부	14
<그림 2> 『탐라순력도』의 6가지 학습유형	39
<그림 3>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의 활동지 예시	46
<그림 4> 어린이체험관 내 『탐라순력도』 퍼즐조각 체험	47
<그림 5> 『탐라순력도』의 미술적 재현활동의 예시	50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조선후기 제주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문화상을 정리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¹⁾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국립제주박물관의 지역사 학습에 활용하여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확장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탐라순력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요소를 추출하여, 박물관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시실이 구성되어 있으며, 선사실·탐라실·고려실·조선실의 시대별 분류와 탐라순력도실·기증실 및 특별(기획)전시실과 같이 주제별 분류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시뿐만 아니라 이들 전시실을 중심으로 전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방문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탐라순력도실은 하나의 유물이 단독으로 전시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탐라순력도』 원본과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탐라순력도』 활용 교육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문화재의 전체적인 의미에 한정된 주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사실을 이해하기에는 다소의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화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상연령은 8~13세의 어린이로 한정하고, 연령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탐라순력도』는 병와 이형상 목사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가 1998년부터 제주시가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립제주박물관에 위탁·전시하고 있다. 『탐라순력도』는 그림과 기록으로 작성된 지역사 자료로써,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와 읍성, 군사 등의 시설과 지형 및 풍물에 관한 갖가지 시각적 정보와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의 제주 사회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특히 '순력도'라는 명칭의 기록화로서는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1979년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현재까지 『탐라순력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주제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교육2)·전시3)·영상4)·문화상품5) 등의 콘텐츠로 재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내 박물관 및 전시관에서도 『탐라순력도』를 통해 알 수 있는 18세기 초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전시·강의, 체험관 등의 교육적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은 『탐라순력도』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

첫째,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탐라순력도실이 마련되어 『탐라순력도』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실물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다. 또한 전시실 내에 진본 및 다양한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학습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둘째, 국립제주박물관에는 『탐라순력도』를 연구하는 학예연구사와 이를 교육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담당자 즉, 에듀케이터(Educator)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예연구사와 에듀케이터가 함께 교육의 주제와 내용 및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역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정규교육과정 사회과 및 역사수업의 체험학습인 문화재 감상이나 현장답사 외에,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탐라순력도』를 재해석할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물관에서는 미술활동, 영상제작, 연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를 재현한다. 재현과정에서 과거를 이해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탐라순력도』를 재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탐라순력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

-
- 2)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탐라순력도 문화콘텐츠 홈페이지(<http://tamnamap.jeju.ac.kr>), 인터넷 공개강의 제주의 역사와 문화유산(http://goodteacher.jejunu.ac.kr/contents/54181273/10/10_01.html) 등이 있다.
 - 3)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탐라순력도실, 제주목관아지의 탐라순력도 체험관 등이 있다.
 - 4) KBS에서 제작·방영된 <역사스페셜> 제85회 '최초 공개, 제주는 군사요새였다'와 JIBS에서 제작·방영된 특집다큐멘터리 <조선왕조실록 제주사 재조명-제6편>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제주' 등이 있다.
 - 5) 달력, 모자, 열쇠고리, 우산, 부채, 티셔츠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탐라순력도 문화콘텐츠 홈페이지(<http://tamnamap.jeju.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첫째, 18세기의 제주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둘째, 심도 깊은 관찰과 견학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당시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학습할 수 있으며 셋째, 역사적 상상력을 증진시켜 추체험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제주박물관에서의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문화자원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학습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성과 분석 및 연구방법

『탐라순력도』는 일찍부터 그 가치를 이해하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인식되어 오다가, 197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면서 역사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건축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탐라순력도』⁶⁾를 영인하여 원 도면의 규모를 살리고 충분한 해설을 덧붙여 일반인들이 『탐라순력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였다.⁷⁾

이후 탐라순력도연구회에서 발간한 『탐라순력도연구논총(耽羅巡歷圖研究論叢)』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탐라순력도』의 내용을 7개 분야, 27개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여 총체적인 연구의 집합체라는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18세기 초 제주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⁸⁾

6)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에서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은 김동전교수(제주대학교)가 담당하였다.

7) 『탐라순력도』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책으로, 김오순의 『탐라순력도 산책』(2001)은 당시 '제주신문(현 제주일보)'에 『탐라순력도』를 주제로 1994년 9월 3일부터 1995년 6월 28일까지 42회, 1997년 9월 27일부터 1998년 8월 30일까지 7회에 이르는 총 49회의 연재 내용을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탐라순력도』의 도면과 내용을 통해 18세기 초 제주의 모습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8) 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에는 각 분야의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있어 이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실린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상학, 「『耽羅巡歷圖』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김동전,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고창석, 「교육제도와 과거

『탐라순력도』에 대한 연구는 이후 학술지와 학위논문 등에서도 다양한 내용과 시각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최근 연구인 이중식의 「『탐라순력도』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⁹⁾는 『탐라순력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 게임, 체험상품 등 다양한 콘텐츠로의 활용가능성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윤민용의 「『탐라순력도』연구」¹⁰⁾는 『탐라순력도』를 조선시대 회화의 미술사적 관점의 연구로, 개별 장면을 상세히 분석하고 분류함으로써 화첩의 제작 배경과 화첩이 갖는 특징과 가치를 다각도로 드러내었다.¹¹⁾ 이 외에 향중양로연, 건축학, 승경, 복식, 무용¹²⁾ 등에 대한 연구는 『탐라순력도』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로 이어졌다.

『탐라순력도』에 대한 초기의 주제가 대부분 문화원형 자체에 집중되었다면, 이후의 연구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활용 가능한 콘텐츠의 개발에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탐라순력도』의 원형에서 찾을 수 있는 18세기

제도; 김상옥, 「朝鮮後期 濟州의 防禦」; 박찬식,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강창용, 「제주 지방의 노인(老人)과 양로연(養老宴)」; 김한용, 「『耽羅巡歷圖』의 감귤산업사적의 의의」; 강민수, 「『耽羅巡歷圖』에 나타난 축산」; 이창익, 「『耽羅巡歷圖』의 古船의 船舶史的 意義」; 신상범, 「『耽羅巡歷圖』에 나타난 경관지」; 김문홍, 「『耽羅巡歷圖』의 植物과 植生」; 손인식, 「『耽羅巡歷圖』의 자연환경(自然環境)」; 고광민, 「『耽羅巡歷圖』의 바다이름」; 정광중, 「『耽羅巡歷圖』를 통해서 본 마을의 구성실태와 분포적 특성」; 오창명, 「『耽羅巡歷圖』의 땅 이름(地名)」; 김봉욱, 「3성·9진과 봉수대·연대」; 신석하, 「『耽羅巡歷圖』에 나타난 관아건축 양식 고찰」; 고부자, 「『耽羅巡歷圖』에 나타난 복식」; 하순애, 「18세기 초 제주인들의 신앙생활과 신당과괴 사건」; 조성운, 「『耽羅巡歷圖』로 읽은 제주도의 의례」; 손영수, 「『耽羅巡歷圖』를 이용한 관광상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백영자, 「『耽羅巡歷圖』에 나타난 의장(儀仗)에 관한 연구」; 양창보, 「『耽羅巡歷圖』의 회화적 의의」; 조영배, 「『耽羅巡歷圖』에 나타나는 음악 연구」; 장효순, 「『耽羅巡歷圖』에 나타난 연회에 관한 연구」; 홍순만, 「瓶窩 李衡祥의 生涯」; 유명중,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의 사상」 등의 연구로 집약되었다.

- 9) 이중식, 「『탐라순력도』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콘텐츠 개발의 현장』, 푸른사상, 2011. 195-226쪽.
- 10) 윤민용, 「『탐라순력도』연구」,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0.
- 11) 이와 같이 미술사학 분야에서 회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다음의 논문이 있다. 윤민용, 「18세기 『탐라순력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제3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김병연, 「조선후기 제주도 문자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8.
- 12) 장현경, 「조선시대 향중양로연」, 『민속학 연구』 제24호, 국립민속박물관, 2009; 윤일이,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3성의 건축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권 제12호, 대한건축학회, 2008; 윤일이,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9진의 건축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3권 제10호, 대한건축학회, 2007; 노재현·신병철·한상엽,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조경학회지』 제37권 3호, 한국조경학회, 2009; 장현주·이주영, 「조선 숙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상급 관원복식」, 『한국복식학회지』 제53권 제3호, 한국복식학회, 2007; 장현주·이주영, 「조선 숙종조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하급 관원복식」, 『한국복식학회지』 제53권 제6호, 한국복식학회, 2007; 채형지, 「제주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무용연구의 재인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2001.

초 제주의 모습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연구 성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무한하다.

아울러 『탐라순력도』의 가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활용은 역사 학습의 장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사 교육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역사학습 목적의 실현은, 『탐라순력도』의 분야별 특징을 교육 대상과 내용에 알맞은 형태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로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역사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강조하며 지역사 학습, 현장학습, 박물관교육 등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³⁾ 하지만 『탐라순력도』가 지닌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 분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도학적 관점으로 지리교육에 활용한 김란영의 연구¹⁴⁾와, 감상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에 활용한 이숙경의 연구¹⁵⁾는 역사학습이 중점은 아니지만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박물관 등 문화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한 강의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체계적인 문화재 학습보다는 단시간에 기본적 지식을 끌어올리는 수준의 학습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
- 13) 윤정현, 「문화재 현장학습이 초등학교 역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이종혁, 「문화재 답사를 통한 초등 역사수업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2010; 김도한, 「오산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고정숙, 「초등학교 사회과의 현장학습을 위한 장소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섭지코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이지혜, 「초등학교 사회과과서와 박물관 활용의 연계방안」,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김길자, 「초등사회과 역사수업에서 TV영상자료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노상림, 「초등학생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박물관 현장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2004; 장재훈,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초등학교의 향토사교육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김호중, 「사회과 현장 체험 학습과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최성열, 「초등사회과에서 향토자료의 활용을 통한 애향심 신장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2003; 이윤경,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역사교육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3 등이 있다.
- 14) 김란영, 「제주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학습 방안-중학교 사회과 1학년 지역탐구 단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15) 이숙경, 「제주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교육은 문화재의 외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제작배경, 용도, 재질을 비롯한 시대적 상황과 생활사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과서에 실린 문화재를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지역사학습의 또 다른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의 모색을 위하여 II장에서는 우선 『탐라순력도』의 내용과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탐라순력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탐라순력도』를 활용하여 어린이 대상의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대상을 선정한 후, 『탐라순력도』 내용에 따른 학습주제 및 내용을 선정하겠다. 학습주제 및 내용은 『탐라순력도』의 내용을 ①군사 및 군마 점검, ②시험 및 행사, ③탐승 및 각종 연회, ④사냥 및 방사, ⑤진상, ⑥기타 6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교육적 요소와 결합시켜 학습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주제를 선정한 후에는 학습유형화 및 교육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전시 감상프로그램’, ‘초등학교 연계프로그램’, ‘자율 참여프로그램’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인 『탐라순력도』의 교육적 활용은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자세히 학습하고, 그림을 이용하여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등의 교육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아울러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 『탐라순력도』의 내용과 교육프로그램 분석

1. 『탐라순력도』의 내용과 역사적 가치

1) 『탐라순력도』의 편찬과 내용

보물 제652-6호인 『탐라순력도』¹⁶⁾는 제주목사이자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인 병와 이형상(瓶窩 李衡祥)¹⁷⁾이 제주도로 도임하던 해인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22일에 걸쳐 제주목관아를 출발로 동-남-서쪽을 돌아 다시 제주목까지 순력했던 내용을 화공 김남길(金南吉)¹⁸⁾이 그림을 그려 이듬해에 완성한 제주 유일의 화첩(畫帖)이다.

화첩의 크기는 가로 35.5cm×세로 55cm이며, 표지는 청회색 무늬가 있는 고급 비단으로 표구되었고, 각 도면은 가로 30cm×세로 29.5cm이다.¹⁹⁾

『탐라순력도』는 전체 41면의 그림과 서문 2면을 포함하여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력을 통해 본 다양한 제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첫 장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漢羅壯矚)’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면은 기록화이며, 행사의 구체적인 실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여기에는 당대 사대부 계층의 자연관과, 전통적인 계획도(契會圖) 화법을 잇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실제의 모습을 관찰한 화가의 경험이 나타나고 있다.²⁰⁾

제목, 그림, 그림내용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8세기 제주의 관아와 성읍, 군사 등의 시설과 지형 및 명승지와 풍물 내용이 담겨 있다. 도로·과거·군사·진상·양노·농업·축산·선박·자연경관·식물상·지명·건축·연회·복식·의장 등 여러 가

16) 1979년 병와 이형상(瓶窩 李衡祥)의 나머지 유작들과 함께 보물 제652호로 지정되었다.

17) 이형상(1653~1733년)의 호는 병와(瓶窩)·순옹(順翁)으로 문무를 겸비하고 덕망을 갖추었으며, 방대한 저술을 남긴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주에 목사로 재임하며 제주의 학문을 부흥시키고, 미신적 악습을 타파하여 도민의 풍속을 교화하고 생활을 개선시키는 등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18) 조선후기 제주목 소속의 지방 화공으로, 생애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19) 고창석, 『탐라순력도와 병와 이형상 목사』, 『탐라순력』 장간호, 2000, 80쪽.

20)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5, 83쪽.

지 모습과 행사에 대한 표현으로 당대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탐라순력도』가 나온 다음해에 이형상 목사는 『남환박물(南宦博物)』을 저술했다.²¹⁾ 『탐라순력도』가 그림으로 제주의 모습을 나타낸 화첩인 반면, 『남환박물』은 기록으로 정리된 것으로 이 두 권의 책은 보완관계로 볼 수 있다. 『탐라순력도』의 내용을 시기순으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²²⁾

<표 1> 『탐라순력도』 43장면 (그림 41면, 서문 2면)

번호	제목	일자	내용
1	한라장축(漢羅壯矚)	1702년 4월 15일	제주도 전도의 개괄
2	공마봉진(貢馬封進)	閏 6월 7일	제주목사가 진상에 쓰일 말을 최종점검
3	승보시사(陞補試士)	閏 6월 17일	승보시(과거)장면
4	감귤봉진(柑橋封進)		진상에 쓰일 귤과 귤껍질을 확인하는 장면
5	귤림풍악(橋林風樂)		망경루 후원 귤림에서 실시된 풍악
6	성산관일(城山觀日)	7월 13일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바라봄
7	우도점마(牛島點馬)	7월 13일	우도목장의 말을 점검함
8	교래대렵(橋來大獵)	10월 11일	교래 부근에서 사냥하는 장면
9	산장구마(山場驅馬)	10월 15일	산장에 말을 모으고 확인하는 장면
10	화북성조(禾北城操)	10월 29일	화북진 소속 성정군의 군사훈련모습
11	조천조점(朝天操點)	10월 29일	조천진 성정군의 훈련과 인근 목장의 둔마 점검
12	김녕관굴(金寧觀屈)	10월 30일	김녕 용암굴을 구경함
13	별방조점(別防操點)	10월 30일	별방성의 군사훈련, 군마점검
14	별방시사(別防試射)	11월 1일	별방진의 활쏘기 시험
15	수산성조(首山城操)	11월 2일	수산진 군사훈련 점검
16	정의조점(旌義操點)	11월 2일	정의현 군사훈련 점검
17	정의양로(旌義養老)	11월 3일	정의현에서 양로잔치
18	정의강사(旌義講射)	11월 4일	정의현에서 강 시험과 활쏘기 시험
19	정방탐승(正方探勝)	11월 5일	배를 타고 정방폭포를 구경함

21) 조선 숙종 당시 제주도의 문물제반현황을 서술한 것으로, ‘남환’이란 제주목사라는 뜻으로 선생 자신을 지칭한 것이며 1979년에 보물 652-5호로 지정되었다.

22) 이종식, 「탐라순력도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콘텐츠 개발의 현장』, 푸른사상, 2011. 199-200쪽. 실제 내용에는 6→8면, 7→9번으로 기재되었으나 필자가 여러 자료를 고찰해 본 결과 날짜가 바뀌어 있어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번호	제 목	일 자	내 용
20	서귀조점(西歸操點)	11월 5일	서귀진 군사훈련
21	천연사후(天淵射候)	11월 6일	천지연에서 활쏘기
22	현폭사후(懸瀑射候)	11월 6일	천제연에서 활쏘기
23	고원방고(羔園訪古)	11월 6일	고둔과원의 왕자구지 탐방
24	산방배작(山房盃酌)	11월 10일	산방굴에서 배작
25	대정조점(大靜操點)	11월 10일	대정현 군사점검
26	대정배전(大靜拜箋)	11월 11일	대정현 배전
27	대정양로(大靜養老)	11월 11일	대정현 양로잔치
28	대정강사(大靜講射)	11월 12일	대정현 활쏘기 시험
29	모슬점부(摹瑟點簿)	11월 13일	모슬진 군사 점검
30	차귀점부(遮歸點簿)	11월 13일	차귀진 군사 점검
31	명월조점(明月操點)	11월 13일	명월진 군사 및 군마 점검
32	명월시사(明月試射)	11월 14일	명월진 활쏘기 시험
33	애월조점(涯月操點)	11월 14일	애월진 군사 및 군마 점검
34	제주조점(濟州操點)	11월 15일	제주읍 성정군 훈련 점검
35	제주전최(濟州殿最)	11월 17일	제주목 관할 관리의 업적 심사
36	제주사회(濟州射會)	11월 18일	제주읍성 활쏘기 시험
37	제주양로(濟州養老)	11월 19일	제주목 양로잔치
38	병담범주(屏潭泛舟)		병담에서 뱃놀이
39	건포배은(巾浦拜恩)	12월 20일	관리들의 조정에 배례, 신당이 불타는 모습
40	비양방록(飛楊放鹿)	1703년 4월 28일	생포한 사슴을 비양도에 방사함
41	서문	1703년 4월 28일	탐라순력도를 그리게 한 목적과 설명
42			
43	호연금서(浩然琴書)		보길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음, 떠나는 모습

『탐라순력도』는 순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순력 이전에 이루어진 표현들도 있다. ‘한라장축’(4/15)·‘공마봉진’(6/7)·‘승보시사’(閏6/17)·‘성산관일’(7/13)·‘우도점마’(7/13)·‘교래대렵’(10/11)·‘산장구마’(10/15)와 같은 장면은 순력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건포배은은 순력을 마친 뒤인 12월 30일에 이루어지

고 있으나, ‘감귤봉진’·‘굴림풍악’·‘병담범주’·‘호연금서’ 등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비양방록’은 임오년 11월 11일에 사슴을 생포하여 계미년 4월 28일에 비양도에 옮겨 풀어주는 내용이다.²³⁾

『탐라순력도』의 각 장면들을 행사 내용면으로 분류하면 순력의 1차적인 목적인 군사훈련 및 군기, 군마의 점검과 활쏘기 시험을 하는 장면이 21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사냥을 비롯한 지역 유람 장면이 8면이고, 양로잔치 및 풍류행사 장면이 5장면, 진상품 점검 등의 공식 행사장면 6장면, 기타 3장면 등이다. 특징적인 것은 각 장면마다 1차적인 행사 외에도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풍습, 생활 문화 등을 보여 주는 그림들이 함께 묘사되어 있어서 당시의 사회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²⁴⁾ 또한 같이 기술된 내용에서 특히 군사 및 군마점검의 장면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보아 군사시설 및 방어에 대한 점검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탐라순력도』의 역사적 가치

『탐라순력도』는 단순한 그림첩이 아닌, 그림을 통하여 1702년 제주라는 특정 공간을 재현하는 중요한 그림이다. 특히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기록화로써의 가치가 뛰어나다.

『탐라순력도』는 각 장면마다 제주도의 특정 장소를 독특하게 잘 묘사하고 있고, 순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배경이 되는 장소의 특성도 잘 그려내고 있다. 특히 성의 모습, 내부의 관아 건물, 주변의 산세, 해안의 절경과 수목 등이 잘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그림을 통해 당시 제주사람들이 지녔던 장소에 대한 인식상의 독특함을 엿볼 수 있다.²⁵⁾ 또한 대부분의 그림을 통하여 18세기 초 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 식물과 식생의 분포도, 제주도의 의례 등을 추측할 수 있다. 3성(三城), 9진(九鎭)²⁶⁾안의 주요 관아건축의 특징과 제주

23) 고창석, 「탐라순력도와 병와 이형상(瓶窩 李衡祥) 목사」, 『탐라순력』, 2000, 81-82쪽.

24) 이종식, 「탐라순력도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콘텐츠 개발의 현장』, 푸른사상, 2012, 201-202쪽.

25) 오상학,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36쪽.

26) 도내의 3성은 제주성, 정의성, 대정성이고, 9진은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수산진, 서귀진, 모슬진, 차귀진, 명월진, 애월진이다.

민의 의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복식 표현 등은 18세기 초 제주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포괄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을 통하여 지도학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도를 답습한 것이 아닌 그 당시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정보들을 지도에 담아 내어 새롭게 지도를 재창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²⁷⁾

다음으로 『탐라순력도』를 회화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감상적 회화 이상의 실용적 목적을 띠고 의례적 규범에 따라 제작된 기록화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양식발전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또한 중앙화공이 아닌 지방화공에 의해 그려진 그림은 산과 오름, 폭포, 수목 등을 그리는 기법이 타 지역과 사뭇 다르다. 이는 이 지역의 지형 및 풍속을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으로 구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⁸⁾

이와 같이 표면적 특징으로 찾을 수 있는 가치 외에도 그림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는 더욱 많다. 먼저 『탐라순력도』의 여러 그림을 통해 18세기 제주의 행정과 도로를 살펴볼 수 있다. 제주목의 관아시설은 ‘제주조점’, ‘제주사회’, ‘제주전최’, ‘제주양노’, ‘감골봉진’, ‘공마봉진’, ‘건포배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의현의 관아시설은 ‘정의조점’과 ‘정의강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대정현의 관아시설은 ‘대정조점’, ‘대정배전’, ‘대정양노’, ‘대정강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18세기 제주의 행정운영과 관아시설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재 제주목관아지를 복원하는데 『탐라순력도』가 가장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당시 제주의 해로는 조천포와 화북포가 주요 포구였고, 육로는 제주목의 읍치를 중심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²⁹⁾

『탐라순력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1면의 군사훈련 및 군기, 군마의 점검과 활쏘기 시험을 하는 장면에서는 제주의 방어체제를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도(海島)이며, 많은 주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 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표류선(漂流

27) 오상학,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37쪽.

28) 양장보, 「『탐라순력도』의 회화적 의의」,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405-406쪽.

29) 김동진,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38-63쪽.

船)과 이양선(異樣船)이 자주 나타나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제주의 지방 군제와 방어체제는 당시 제주의 대응양상을 살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³⁰⁾ 이는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순력을 통하여 군사훈련 및 군마의 점검을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는데서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에서 3성 9진과 25봉수 38연대의 위치, 크기,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당시 제주의 방어체제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를 살펴보면 주된 내용이 군사시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관을 자세히 기록한 그림은 몇 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탐라순력도』에는 제주에서 주목되는 경관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당시에는 명소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과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따라서 자연환경에 관해 18세기 이전의 문헌적 자료나 시각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탐라순력도』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³¹⁾ 또한 당시의 식물과 식생, 자연환경등도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는 매우 크다.

『탐라순력도』에서는 다양한 행사장면을 통하여 당시 사회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특히 ‘건포배운’에서 신당이 불에 타고 향품문무가 북쪽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리는 장면은, 유교사상에 입각한 이형상 목사의 제주 민간신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를 통해 당시 제주의 민간신앙이 그만큼 발달했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탐라순력도』를 통해서 이를 가늠해볼 수 있다.³²⁾

또한 ‘승보시사’, ‘별방시사’, ‘정의강사’, ‘천연사후’, ‘현폭사후’, ‘대정강사’, ‘명월시사’, ‘제주사회’에서는 삼읍 향교와 굴림서원 중심의 교육제도, 그리고 당시 제주의 과거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장면 중 대부분은 활쏘기와 관련된 장면으로, 당시 이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도 짐작할 수 있다.³³⁾

뿐만 아니라 『탐라순력도』에서는 당시 제주의 진상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에는 제주 진상의 품목과 수량, 봉진 방식 등이 그림과 기록

30) 김상옥, 「朝鮮後期 濟州의 防禦」,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82쪽.

31) 신상범,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경관지」,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185쪽.

32) 하순애, 「18세기 초 제주인의 신앙생활과 신당파괴사건」,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333쪽.

33) 고창석,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65쪽.

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당시 진상의 체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³⁴⁾

이 외에도 당시 제주의 감귤산업사, 축산, 선박, 마을의 분포, 땅의 이름, 바다의 이름, 복식, 의례, 의장, 음악과 연희도 확인할 수 있어, 『탐라순력도』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뛰어남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당시 조상들이 생활했던 제주라는 구체적 장소를 재구성하고, 그들의 삶과 사고들을 공유하며 역사를 이해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다.³⁵⁾

따라서 『탐라순력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록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확인된다.

2. 국립제주박물관의 『탐라순력도』 교육프로그램 분석

1)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국립제주박물관³⁶⁾은 현재 보물 제652-6호인 『탐라순력도』를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전시하고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의 전시뿐만 아니라 그림과 글을 편집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재생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탐라순력도 자세히 보기’라는 주제로 터치스크린 방식의 학습 모니터 두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시실 내부를 살펴보면, 우선 『탐라순력도』진본은 중앙 유리장에 전시되어 있고 벽면에는 복제본이 전시되어 그림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4) 박찬식,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99쪽.

35) 오상학,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37쪽.

36) 국립제주박물관의 건립목적은 탐라의 해양문화를 전문으로 특화된 고고역사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유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 지역사회 중심문화기관 지향(미래비전: 격조 있고 사랑받는 박물관),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박물관의 실현,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중심역할 지향 등이 있다.

<그림 1>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순력도실 내부



이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 운영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린이·청소년·성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른 분류방법을 통하여 어린이(가족)·학교 연계(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성인으로³⁷⁾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탐라순력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육프로그램도 모든 대상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1년에 운영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7) 어린이는 8세에서 13세까지, 가족은 어린이 동반 가족, 학교 연계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성인은 만 18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표 2> 2011년도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내용

구분	프로그램	대상	내용	운영 시기	방법	횟수
어린이	제주 마(馬)축제 연계 프로그램 <제주 마 문화를 찾아서>	어린이 동반 가족	마(馬)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도내 말 관련 전시관 및 유적지 답사, 국립제주박물관 내 ‘공마봉진’ 학습	10월	답사	2회
	제1기 제주 어린이 박물관학교 <조선시대, 제주의 곳곳을 살펴보다>	초등학교 4~6학년 40여 명	『탐라순력도』의 설명을 통한 제주 역사와 문화의 이해와 재현학습을 통한 독자제작	6월	이론 및 체험	1회
청소년	제3기 청소년 뮤지엄 아카데미 <명사특강, 역사 문화 재조명 I - 300년 전의 기록 탐라순력도>	중학교 1~3학년 40여 명	『탐라순력도』의 설명을 통한 제주 역사와 문화의 이해	5월	이론	1회
	제3기 청소년 뮤지엄 아카데미 <역사교육연극, 탐라순력도 들여다보기>	중학교 1~3학년 40여 명	『탐라순력도』의 내용을 연극으로 재해석	8월	체험	6회
	상설전시실 학습 <청소년, 교과서 밖 유물과 만나다 - 300년 전 제주를 그린 그림>	도내 중·고등 학생	상설전시실 유물 학습 중 『탐라순력도』 관련 문제 풀이	상시	전시 감상	다수
성인	제4기 전통문화 체험 교실 <박물관 속 공방,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칠보공예>	성인 20여 명	전통공예기법 중 칠보공예를 활용한 『탐라순력도』의 표현	9월~10월	이론 및 체험	7회

※위의 프로그램은 2011년도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운영된 교육프로그램 중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된 『탐라순력도』 교육프로그램은 제주 마(馬)축제와 연계한 답사프로그램인 <제주 마(馬) 문화를 찾아서,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貢馬封進)’>과 제1기 제주어린이박물관학교의 제6차 프로그램인 <조선시대, 제주의 곳곳을 살펴보다>가 대표적으로 운영되었다. 여기에는 『탐라순력도』에 수록된 장면 중 마(馬)와 관련된 장면을 간단하게 학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주 마(馬) 문화를 찾아서,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貢馬封進)’>은 한국마사회에서 주최하는 ‘제주 마(馬) 축제’의 진행기간 중 2회³⁸⁾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는 어린이 동반 가족들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답사와 미션 수행이 중심이 되어, 『탐라순력도』의 장면 중 진상에 필요한 말을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광경을 그린 ‘공마봉진’을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탐라순력도실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당시 진상된 말을 길렀던 도내 국영목장을 찾아가는 등의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답사를 통한 문화재 현장학습과, 미션을 수행하는 문화재 프로젝트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문화재를 통한 역사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순력도의 장면은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보인다. 특히 『탐라순력도』를 주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답사 및 미션 수행 등을 활용한다면, 박물관학습·문화재 현장체험학습·문화재 프로젝트 활동이 결합된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제1기 제주 어린이 박물관학교 제6차 프로그램에서 운영한 <조선시대, 제주의 곳곳을 살펴보다>를 살펴보겠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인 ‘제주 어린이 박물관학교’는 제주도의 탄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박물관의 역할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한 40여 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총 14회의 과정이 운영되었다.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38) 2011년도에는 10월 15, 16, 22, 23일에 운영되었고 그 중 답사 프로그램은 10월 16일, 23일에 진행되었다.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 『탐라순력도』를 학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상설전시실 내 탐라순력도실의 전시내용과 학예연구사의 설명 등을 통하여 6차, 1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탐라순력도』의 이론적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는 『탐라순력도』를 감상한 후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그린 후 족자로 제작하는 등 문화재 재현학습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의 곳곳을 살펴보다>는 1회에 한해 학습하는 단기성의 학습이지만 제주의 역사를 학습하는 데 있어 『탐라순력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어린이들에게 그 가치를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18세기 초 조선시대의 제주 모습을 살펴보고 추론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학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접한 화선지에 『탐라순력도』의 인상적인 장면을 담아내어 족자로 완성시키는 체험프로그램은 박물관을 통한 문화재 학습·문화재 실물학습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학습자가 내용의 이해만 학습하는 것이 아닌, 문화재를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사의 추체험학습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어린이 박물관학교’에서 운영된 『탐라순력도』교육프로그램은 1회 2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탐라순력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역사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탐라순력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된다면, 18세기 초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다음으로는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으로 제3기 청소년 뮤지엄 아카데미 제3차 프로그램 <명사특강, 역사 문화 재조명 I - 300년 전의 기록 탐라순력도>, 8~13차 프로그램 <역사교육연극, 탐라순력도 들여다보기>, 상설전시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활동책 <청소년, 교과서 밖 유물과 만나다 - 300년 전 제주를 그린 그림>에 대하여 분석해보겠다.

학교연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립제주박물관의 ‘청소년 뮤지엄 아카데미’는 2011년에 제3기가 운영되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심화학습으로 운영되었다. 제3기의 참가자는 중학교 1-3학년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학생들로 총 13회의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그 중 『탐라순력도』는 3차, 8~13차로 총7회에 걸쳐 운영되었는데 3차에서는 『탐라순력도』의 감상과 이론학습을, 8~13차에서는 이론학습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연극을 준비하고 발표하였다. 특히 역사교육연극은 참가자들이 『탐라순력도』의 장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제를 정한 뒤, 대본을 만들어 역할을 나누고 배경그림부터 분장까지 모두 스스로 담당하였다. 이를 통하여 심화학습에 걸맞게 선택한 장면의 역사적 배경,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역사적 상상력까지 첨가하여 『탐라순력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박물관 학습과 문화재 프로젝트 활동이 결합된 것으로, 내용의 이해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가 당시의 역사에 대한 추체험학습의 극대화를 제공하였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프로그램 신청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경우 학습과정의 부적응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교육담당자의 안정된 프로그램 기획과 노력이 배가 되었을 때 해소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한편,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실의 효율적인 감상과 학습을 위하여 전시실 내에 청소년 대상 활동지인 ‘청소년, 교과서 밖 유물과 만나다’를 배치하고 있다. 활동지가 개인 방문자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학교단체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다수의 인원이 전시해설사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활동지는 상설전시실 내 유물을 통하여 제주의 전반적인 역사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이 중 12페이지에 수록된 ‘300년 전 제주를 그린 그림’은 <탐라순력도실>에서 『탐라순력도』를 감상하며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 『탐라순력도』를 그리도록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탐라순력도』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었나요?
- 『탐라순력도』 중 1702년 11월 15일에 제주읍성의 군사와 훈련사항을 점검하는 그림으로 당시 제주 읍성안의 관아 건물 위치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는 이 장면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대상 활동지 ‘청소년, 교과서 밖 유물과 만나다’는 『탐라순력도』의 기본 정보를 익힐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활동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상에 대한 확인만 제시한다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이는 상설전시실 내의 다양한 유물을 읽은 활동지를 통해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를 제시할 수 없는 것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각 전시실별 활동지는 문화재 감상과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제의 제시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3)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다음으로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성인 약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통문화 체험교실로, 2011년도 하반기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은 우선 『탐라순력도』에 대한 이론학습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익히고, 장면을 선택하여 거울에 그림을 그린 후 칠보공예로 완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전통문화를 『탐라순력도』와 접목시켜 새로운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성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스스로가 『탐라순력도』를 더 다채롭게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미술표현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인 칠보공예에 『탐라순력도』를 적용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익힘과 동시에 그 주제와 소재로써 문화재에 대한 심미적 요소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탐라순력도』를 칠보공예라는 전통문화로 재해석하여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제공은 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의 하나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교육프로그램의 분석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를 그림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론학습 및 재현학습방식 등의 개발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역사적 가치 이상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탐라

순력도』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중의 단점 및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교육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표 3>에서와 같이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표 3> 『탐라순력도』 교육프로그램의 장·단점 분석

대상	프로그램 명	장점	단점
어린이	제주 마(馬) 문화를 찾아서,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	박물관에서 ‘공마봉진’을 통해 말의 진상에 대하여 확인한 후, 실제 국영목장을 찾아 말을 관람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가 주제가 아닌, 마(馬)문화를 학습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의 곳곳을 살펴보다	학예연구사에 의한 『탐라순력도』의 이론학습과, 문화재 재현이라는 실물학습이 동시에 가능하다.	『탐라순력도』 그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그려 족자로 완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청소년	명사특강, 역사 문화 재조명 I - 300년 전의 기록 탐라순력도	학예연구사에 의하여 41면의 그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2시간동안 이론학습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산만하게 운영되었다.
	역사교육연극, 탐라순력도 들여다보기	그림 선택, 대본의 구성, 무대구성 등 학습자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시간부족으로 인해 연습량이 부족했고, 자세한 관찰 및 추론을 통한 연극 구성에 이르지 못했다.
	청소년, 교과서 밖 유물과 만나다 - 300년 전 제주를 그린 그림	<탐라순력도실>에서 실제 문화재를 감상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실>과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에 그치고, 역사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성인	박물관 속 공방,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칠보공예	전통공예와 문화재를 접목하여 『탐라순력도』의 재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의 내용보다 전통공예의 결과물에 중점을 두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된 <제주 마(馬) 문화를 찾아서,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의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공마봉진’을 실제로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제주의 말 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전시활동 후에 국영목장 답사에서 말을 관람하며 과거를 추체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은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馬) 문화를 학습하기 위하여 ‘공마봉진’을 살펴보는 것으로, 『탐라순력도』는 보조적인 수단을 가진 자료로써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탐라순력도』의 내용 중 ‘진상’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진상과 관련된 그림을 살핀 후 해당 장소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접목하여 주제에 따른 역사학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제주의 곳곳을 살펴보다>는 학예연구사에 의하여 『탐라순력도』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론학습 후에 『탐라순력도』를 족자로 재현해보는 실물학습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탐라순력도』 그림 자체가 어린이들이 따라 그리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그려 족자로 완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학습자가 『탐라순력도』를 관찰한 후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재해석해보는 활동은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18세기 초 제주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명사특강, 역사 문화 재조명 I - 300년 전의 기록 탐라순력도>는 학예연구사에 의하여 41면의 그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지만, 2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론학습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다소 산만하게 운영되었다는 단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기에서는 긴 시간의 이론학습 구성에는 휴식 시간을 추가하거나, 실물학습을 추가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탐라순력도』의 그림을 연극으로 재해석해보는 <역사교육연극, 탐라순력도 들여다보기>는 학습자 스스로가 『탐라순력도』의 41면의 그림 중 주제를 선정하여 그림 선택하고 대본의 구성, 무대구성 등을 모두 스스로 준비하여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그 완성도가 높지 않았고, 구성면에서도 다양한 상상력이 동원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러

나 연극이라는 콘텐츠 자체는 일반적인 문화재 재현학습과 다르게 깊은 관찰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탐라순력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충분해질 때 새로운 학습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설전시실 내 <탐라순력도실>의 활동지 활동인 <청소년, 교과서 밖 유물과 만나다 - 300년 전 제주를 그린 그림>도 박물관 교육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실제 문화재를 감상하며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탐라순력도실>과 관련된 문제는 단 세 가지만 제시되었고 역사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이 제주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과 역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탐라순력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탐라순력도』의 교육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탐라순력도실>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활동북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물과 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 학습자가 상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를 포함시켜, 실물 감상을 통한 역사적 추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된 <박물관 속 공방,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칠보공예>는 전통공예라는 미술적 표현방법과 『탐라순력도』라는 문화재를 접목하여 문화재의 미술적 재해석을 유도했다는 면에서 각광받았다. 하지만 칠보공예라는 활동은 『탐라순력도』의 내용보다 결과물을 중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역사적 내용의 학습보다는 미(美)적 완성도에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기 위한 과정에서 『탐라순력도』의 어떤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였고 재해석했는지 충분한 사전 설명과 더불어 미술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내적·외적으로 더 훌륭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을 나타낸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살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의 <제1기 제주 어린이 박물관학교>와 청소년의 <청소년, 교과서 밖 유물과 만나다>의 설문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기 제주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운영하기 전 참여자들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대부분 이해하였다고 답하였다.³⁹⁾ 따라서 <제1기 제주 어린이 박물관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정도가 상승하여 어린이의 역사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에서는 특히 체험학습을 통한 활동으로 흥미롭게 역사를 학습할 수 있어 이해가 쉬웠다는 반응이 높아, 어린이들은 이론학습과 체험학습을 병행한 수업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교과서 밖 유물과 만나다>에서는 사전조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시실에서의 활동지 문제 해결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하지만 후기에서 활동지의 난이도가 맞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의 활동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 학습하여 중학생에게는 난이도가 알맞지만 고등학생에게는 매우 쉬웠기 때문이다. 활동지를 통한 전시실 학습은 매우 효과적이지만 난이도에 알맞은 활동지 개발이나, 학교급별 차이를 둔 학습프로그램의 추가가 요청된다.

따라서 설문조사결과를 적용하여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서는 이론학습과 체험학습을 병행하고,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활동지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전체적으로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탐라순력도』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주제에 따른 학습보다는 주로 ‘탐라순력도의 정의와 가치’를 통틀어 학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보완은 『탐라순력도』의 기본지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에 나오는 장소에서 발견된 유물, 역사적 내용 등을 학습하는 등 18세기의 제주 모습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연관성 있는 교육프로그

39)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9명이고 프로그램 사전응답자는 39명, 사후 응답자는 18명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사전질문에 대하여 3명은 그렇다(7.69%), 28명은 보통이다(71.79%), 8명은 모른다(20.51%)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프로그램 종료 후 같은 질문에 대하여 7명이 아주 그렇다(38.88%), 11명이 그렇다(61.11%)라고 대답하였다.

40) “전시실을 관람할 때 활동지를 통한 학습으로 제주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총 인원 30명 중 5명이 매우 그렇다(16.66%), 25명이 그렇다(83.33%)로 대답하였다.

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물관 체험학습은 주로 문화재와 미술활동을 연결 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역사학습에서 글쓰기, 만들기, 예술로 표현하기 등은 자칫 학생의 역사이해와 크게 관련 없이 결과물의 제작에만 큰 의미를 두는 활동으로 그칠 수 있다. 학생들의 ‘역사하기’는 학생들의 역사이해의 산물이어야 하기에 표현물에 담겨 있는 내용에 주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 예컨대 작품성 등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⁴¹⁾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미술활동을 통하여 문화재를 표현하며 현재 만든 작품의 예술성보다, 과거에 조상들이 문화재를 제작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학습의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1) 최용규 외 공저, 『초등교사를 위한 사회과 역사 수업 가이드 살아있는 역사수업』, 교육과학사, 2009, 97쪽.

Ⅲ. 『탐라순력도』의 교육요소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1. 어린이를 위한 『탐라순력도』의 교육요소

1) 교육대상

박물관은 수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에 따른 대상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별 교육방법과 난이도를 달리하여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잠재적 관람객을 만들고 공교육과 연계가 가능하며 비교적 여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학습이 가능한 어린이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⁴²⁾

어린이는 잠재적인 관람객이나 다름없으므로 어릴 때부터 박물관과의 친근한 관계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현장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유물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⁴³⁾

넓은 의미에서 박물관 교육은 새로운 것 즉, 전시와 전시물을 보고 경험하는 사고활동을 말한다.⁴⁴⁾ 어린이는 박물관에서 ‘과거’의 증거물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전시실의 패널은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칫 오래된 물건을 눈으로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에는 관련 유물을 감상하기 전에 어린이의 눈높이에 알맞은 역사 및 유물의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유물 감상이나 추

42)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정규교육기관인 박물관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상 연령에 포함되는 8세부터 13세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43) 한지훈,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36-37쪽.

44) 백 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2005, 122쪽.

체험을 통해 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알맞은 역사와 유물 해설은 박물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교육담당자가 더욱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박물관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박물관은 전시물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는 주변 모든 사물과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관찰하며 탐구한다. 박물관에서는 전시물을 매개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론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촉진시킨다.⁴⁵⁾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의 경우의 대부분은 부모나 친구 등의 권유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의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⁴⁶⁾ 이러한 사례는 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어린이의 경우, 우선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의 역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며 다양한 방법의 재현활동을 경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박물관에서는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전시물과 교육내용을 추출하여 공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과에서 배우는 역사와 문화 등을 박물관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사회과를 배우는 학년은 3학년~6학년이다. 사회과 내용 중에서도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영역의 내용을 학년별 수준에 알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과 내용체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45) 최중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214쪽.

46) 실제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2011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초등학교 1학년-3학년 대상으로 운영된 '박물관 보물찾기'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인원 217명 중 130명(약 60%)이 부모님의 권유로, 28명(약 13%)이 친구의 권유로 참여하였으며, 1회 이상 참여 인원이 148명(약 68%)이었다.

<표 4> 초등 사회과 내용체계⁴⁷⁾

학 년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살아가는 곳 ■ 사람들이 모이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장의 정체성 ■ 이동과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생활문화 ■ 다양한 삶의 모습들
4학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 여러 지역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된 거래 ■ 다양한 문화가 발전한 고려 ■ 유교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민족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	-
6학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우리 국토 ■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위의 <표 4>를 살펴보면, 우선 3학년에서는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을 모두 골고루 학습하고, 4학년에서는 역사 영역을 제외한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만을 학습한다. 또한 5학년에서는 역사 영역으로 한국사만을 학습하고, 6학년에서는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을 학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과 학습의 범위가 고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한국사의 전체내용을 배우는 5학년과 지식을 세계로 확장하는 6학년보다, 우리 고장에 대해 배우는 단계인 3학년과 역

47) 교육과학기술부, 『역사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내용』, 교육과학기술부, 2009, 1쪽.

사영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지리영역으로써 지역에 대해 배우는 4학년 사회과 시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사회과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고장과 지역을 학습할 수 있는 단원이 배정되어 있고, 이론과 더불어 답사 경험으로써의 이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더욱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⁴⁸⁾ 다음의 <표 5>는 실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지역을 학습할 수 있는 단원 내용이다.

<표 5>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지역 관련 단원

학년	학기	범위	주요내용	단원
3	1	우리 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역사 ■ 고장의 생활과 문화유산 	2. 고장의 자랑 ①고장의 발자취 ②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과 일 ③고장의 행사 ④고장을 대표하는 것 3. 고장의 생활과 변화 ①의식주 생활의 변화 ②지혜를 담아 온 생활 도구 ③옛날과 오늘날의 여가 생활 ④고장의 문화유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 답사 	1. 고장 생활의 중심지 ③우리 고장과 이웃 고장 ④고장의 중심지 답사
4	1	우리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답사 	1. 우리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①우리 지역이 자리 잡은 곳 ②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③우리 지역의 생활 모습 ④우리 지역 현장 답사 ※제주도 사회과 지역교과서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와 단원명 동일

48) 실제로 국립제주박물관은 어린이 대상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 박물관을 찾다’는 문화재 복원 및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학습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은 박물관에서 원거리 지역의 학교에 찾아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과 수업에서 운영하는 고장 및 지역에 대한 학습에서는 답사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답사는 박물관 혹은 문화재가 답사장소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그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공교육과 비정규교육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는 답사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박물관 교육담당자와 교류하며 어떤 내용의 유물을 학습하고, 제주의 어떤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박물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전적으로 박물관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할 수 있지만, 박물관을 떠나 학교로 돌아간 후에 사후활동은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주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주말에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가 증가하여 지역에서 박물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교육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전시를 감상하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전시를 감상하기 위해 박물관에 오는 어린이의 경우, 전시의 해설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시로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매번 쉬운 해설을 하거나, 전시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활동지’ 개발을 통해 어린이가 쉽게 『탐라순력도』를 이해하고,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와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전시 감상 외에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 중,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여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다. 『탐라순력도』를 활용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발된 인원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장기간에 걸친 역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공교육을 떠나 박물관만의 독자적이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사회과에 고장과 지역에 관한 단원을 학습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단원 주제인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에 두고자 한다. 이는 『탐라순력도』를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공교육과 박물관 간의 긴밀한 관계를 정착시키며 더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국립제주박물관만의 특성화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제안을 통하여 교육기회의 확대와 역사학습에 적극 기여하는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2) 학습주제 및 내용

2011년도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운영했던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탐라순력도』의 내용을 자세히 탐구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물론 『탐라순력도』의 가치와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통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학습자가 깨달을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의미학습과 더불어 『탐라순력도』를 자세히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별 분류에 따른 주제학습을 제시하고자한다. 이에 따라 『탐라순력도』의 서문을 제외한 그림 41면 중 비슷한 내용의 장면을 묶어 크게 여러 가지 주제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제별 장면의 내용을 통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탐라순력도』의 43장면 중 서문 2면을 제외한 41면의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이 ①군사 및 군마 점검, ②시험 및 행사, ③탐승 및 각종 연회, ④사냥 및 방사, ⑤진상, ⑥기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⁹⁾

49) 이종식, 「『탐라순력도』의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콘텐츠 개발의 현장』, 푸른사상, 2011, 206쪽.

<표 6> 탐라순력도의 내용별 구분 (서문 제외)

구분		면수	장면
①군사 및 군마점검	군사	12	화북성조, 조천조점, 별방조점, 수산성조, 정의조점, 서귀조점, 대정조점, 모슬점부, 차귀점부, 명월조점, 애월조점, 제주조점
	군마	2	산장구마, 우도점마
②시험 및 행사	시험	9	승보시사, 별방시사, 정의강사, 천연사후, 현폭사후, 대정배전, 대정강사, 명월시사, 제주사회
	행사	2	제주전최, 건포배은
③탐승 및 각종 연회	탐승	5	성산관일, 김녕관굴, 정방탐승, 산방배작, 병담범주
	연회	5	굴림풍악, 고원방고, 정의양로, 대정양로, 제주양로
④사냥 및 방사	사냥	1	교래대렵
	방사	1	비양방록
⑤진상		2	공마봉진, 감귤봉진
⑥기타		2	한라장축, 호연금서
계		41 면	

위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습시간과 분량에 따라 장면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각 장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에, 장면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고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러 장면 중 3학년과 4학년의 사회과 단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원본의 그림과 내용을 어린이에게 그대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림의 규모가 작고, 한자로 이루어졌으며 설명된 내용이라고 해도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담당자는 학습자가 내용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재해석된 그림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연령에 따라 이해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별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탐라순력도』를 내용별로 구분한 6가지의 세부주제와 학습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내용은 주제별로 구분된 각 장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1) 군사 및 군마점검: 제주의 방어체제

『탐라순력도』의 서문을 제외한 그림 41면에서 군사점검은 12면, 군마점검은 2면으로 총 14면이다. 이처럼 『탐라순력도』를 제작한 일차적 목적이 방어체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 장면마다 특정 장소의 모습과 지형이 자세하고, 당시 방어체제인 3성 9진 25봉수 38연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방어체제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침략은 1552년에 왜구가 천미포에서 난동을 부려 일어난 천미포 왜란⁵⁰⁾과 1555년에 왜구가 화북포에 침략하여 일어난 을묘왜변⁵¹⁾이 있다.

왜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우리나라 도서 지방과 해안 지역, 중국의 연안까지 침략하여 방화, 약탈, 인명 살상을 일삼던 해적의 무리였다. 이들로 인해 제주에서도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왜구는 추자도 근해에 숨어 있다가 공물 운반선을 약탈하고, 땀감과 물, 식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으로 올라와 제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잦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제주에서는 일찍부터 방어시설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제주의 방어체제는 3성 9진 25봉수 38연대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3성을 중심으로 왜구의 침략이 잦은 각 지역의 해안마다 진성을 쌓고, 가까운 오름에 봉수와 연대를 마련하였다. 봉수대에는 별장과 망지기, 연대에는 별장과 보초병이 배치되어 햇불과 연기로 왜선을 감시하였다. 이 외에도 왜구의 상륙이 예상되는 지역⁵²⁾에는 수군방호소를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켰다.⁵³⁾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장면은 『탐라순력도』 중 군사 및

50) 1552년(명종 7년) 5월에 포르투갈인을 포함한 왜적 200여 명이 제주 천미포에 침입하여 주민을 살상하고 재물을 약탈하였는데, 이를 지역 백성들이 대항하여 물리쳤다.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jeju.grandculture.net>에서 발췌)

51) 1555년(명종 10년) 6월에 왜구 1000여 명이 제주 화북포 일대에 침입하여, 3일간 제주성을 둘러싸고 제주민과 왜구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jeju.grandculture.net>에서 발췌)

52) 화북포, 조천진, 어등포, 애월포, 명월포, 열운포, 서귀포, 모슬포

53)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엮음,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 61쪽.

군마점검에 해당하는 주제로 ‘제주의 방어체제’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주제에 대한 이론 설명과 더불어 방어유적 답사와 체험 등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왜구의 침략에 따른 횃불과 연기의 사용방법을 체험하거나, 모든 방어유적을 답사하는 것에 시간과 내용상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성과 진성, 봉수와 연대 중 대표적인 유적을 답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2)시험 및 행사: 시험과 행사

『탐라순력도』의 시험 및 행사장면에서는 당시 제주에서의 시험과 행사와 관련된 장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탐라순력도』 41면 중 11면이 시험 및 행사장면에 속하며, ‘제주전최’와 ‘건포배은’을 제외한 장면이 모두 시험 장면으로, 시험에는 활쏘기 시험과 강 받기 시험이 있다.

시험 장면 중 ‘승보시사’는 이형상 목사 자신이 시험관이 되어 시행한 시험장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시험장은 관덕정이다.⁵⁴⁾ 이를 활용하여 관덕정을 방문했을 때, 활쏘기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놀이를 통한 역사적 추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장소에서의 활쏘기 시험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읍성과 진성, 연대와 봉수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천제연 폭포, 천지연 폭포 등에서의 활쏘기 시험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험을 같이 보았다. 또한 제주읍을 비롯한 대정읍, 정의읍의 자세한 마을의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각 읍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사장면으로 분류한 ‘제주전최’는 제주목사가 각 관리의 공적을 심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당시 제주지방의 군대는 속오군과 마대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림 아래의 기록에 따르면 속오군 각 부의 책임자인 천총, 각 사의 책임자인 파총, 각 초의 책임자인 초관, 마대의 책임자인 별장, 각 진의 조방장, 성장, 교련관, 기패관 등 군 관련 인사는 물론이고, 도 훈장, 각 면의 훈장과 교사장, 강유, 사원들 까지 800명이 넘는 인원이 모두 전최의 대상이었다.⁵⁵⁾ 이를 통하여 당시 제주목사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전최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54)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22쪽.

55)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90쪽.

다음으로 ‘건포배은’은 향품문무 300여 명이 관덕정 앞과 건입포에서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은혜에 감사하는 절을 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또한 또 다른 장면으로 한라산과 성 밖 마을에서 신당들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건포배은’과 ‘신당파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림을 살펴볼 수 있다.⁵⁶⁾ 그림 자체만 보았을 때는 목사가 신당을 불태우고 절을 훼손한 것에 대해 도민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북쪽의 임금을 향해 절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신당파괴에 대한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것도 아니다. 건포배은은 이형상 목사가 조정에 장계를 올려 허락을 받음으로써 민폐가 감소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을 올린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건포배은에서 절을 올리는 장면과 신당이 불에 타는 장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형상 목사가 제주의 민간신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신당을 파괴했던 것을 업적으로 여길 만큼 의미 있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⁵⁷⁾ 하지만 파괴해야 할 신당과 절이 많았다는 점과 이형상 목사가 이를 파괴한 것을 큰 업적으로 여겼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제주인들의 신앙에 있어 민간신앙이 갖는 의미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신당과 절을 파괴한다는 것이 제주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당시 제주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에 대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형상 목사의 입장과 일반 제주인들의 입장에서 민간신앙에 대한 토론회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탐라순력도』의 시험 및 행사 장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각 장면의 분석을 통하여 더욱 깊이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3) 탐승 및 각종 연회: 제주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연회

『탐라순력도』 중 탐승장면은 5면, 연회장면은 5면으로 구성되었다. 탐승장면인 ‘성산관일’, ‘김녕관굴’, ‘정방탐승’, ‘산방배작’, ‘병담범주’에 나오는 성산일출봉, 김녕동굴, 정방폭포, 산방산, 용연 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가꾸어져 사람들이

56)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96쪽.

57) 하순애, 「18세기 초 제주인의 신앙생활과 신당파괴사건」,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333-334쪽.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게다가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김녕동굴은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탐승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탐라순력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연환경을 찾고, 그림 속 장면을 자세히 탐구하여 현재의 그 장소와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답사까지 진행한다면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역사적 관심이 고조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병담범주’는 취병담, 즉 용연에서 뱃놀이를 하는 장면으로, 용연 뒤로는 한라산 백록담까지의 산의 지형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그 옆으로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으며 연대와 봉수의 위치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즐긴 연회장면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연회를 즐기는 장면 옆에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도 제주의 관리의 삶과 일반 제주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연회장면에서 ‘고원방고’는 현재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했으며, 고원방고 내 왕자구지는 제주로 부임한 목사들이 즐겨 찾는 경승지였다고 한다.⁵⁸⁾ 또한 ‘굴림 풍악’은 망경루 후원 굴림에서 풍악을 즐기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과수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연회 장면인 ‘제주양로’, ‘정의양로’, ‘대정양로’는 각 읍성의 노인잔치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린이의 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탐승 및 각종 연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연회’라고 주제를 정한 후에 자연환경 학습, 제주 관리와 제주인들의 생활상, 노인공경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고, 추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4)사냥 및 방사: 사냥과 방사

『탐라순력도』에서 사냥을 하는 장면은 ‘교래대렵’이고, 방사를 하는 장면은 ‘비

58)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64쪽.

양방록'이다. '교래대렵'은 관원들이 진상을 위한 날짐승과 산짐승을 사냥하는 장면으로, 사슴과 노루를 쫓는 모습이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림에 기재된 여러 오름은 현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당시 사냥 장소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⁵⁹⁾ 그림을 통하여 오름의 지형과 이름, 그리고 당시 사냥을 통해 잡은 짐승의 숫자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비양방록'은 생포한 사슴을 비양도로 옮겨 방사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 속에는 비양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주읍성의 서문에서 명월진에 이르기까지의 지형을 모두 담고 있다. 또한 해안의 지형, 봉수와 연대의 위치, 진성의 위치, 산천의 지형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⁶⁰⁾

이 장면에 대한 학습내용으로는 사냥의 목적, 장소, 방법, 품목 등을 이해하고, 왜 생포한 사슴을 방사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촉구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사냥을 경험할 수는 없으나, 제주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그 장소를 답사할 수 있다.

(5)진상 관련: 굴과 말의 진상

제주의 대표적인 진상품은 감귤과 말이었다. 『탐라순력도』에는 이 두 가지 품목을 점검하는 내용인 '감귤봉진'과 '공마봉진'이 포함되어있다. '감귤봉진'은 제주목관아 내 망경루 앞에서 귤을 봉진하는 장면으로, 연회각에 앉아있는 이형상 목사는 감귤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이 그림에는 진상하는 귤의 종류, 진상의 용도, 포장 방법, 봉진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⁶¹⁾ 특히 진상하는 귤의 용도 중 황감제(黃柑製)⁶²⁾에 사용하던 귤도 있어, 다양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공마봉진'은 진상에 필요한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하여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목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말들을 이끌고 목사 앞을 지나며 점검하고 있다. 공마점검은 관덕정 앞에서 목사가 입회한 가운데

59)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30쪽.

60)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98쪽.

61)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26쪽.

62) 황감제란, 해마다 제주에서 진상하는 황감을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에게 내리고 실시하던 과거를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실시되었는데, 공마봉진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대정현감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임명했다.⁶³⁾ ‘공마봉진’에서도 봉진절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봉진하는 말의 종류와 진상용도 및 진상 마필 수를 확인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진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진상과 관련된 장면은 ‘굴과 말의 진상’으로 진상을 묶어 학습하며, 진상품목과 쓰임새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근대사회에서 진상이 지닌 사회·경제적 이해를 대상별로 촉진할 수 있고, 당시 제주 사람들이 겪었을 진상역에 대한 이해와 생활사에 대한 역사적 접근방법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6)기타: 제주의 지도

기타로 구분한 장면은 ‘한라장축’과 ‘호연금서’이다. ‘한라장축’은 현존하는 ‘독립된 제주도 지도’로는 매우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다. 지도에는 24방위를 배치하고 해당 방향에 주변 지역을 그려 넣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게 했다. 또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삼읍 관아의 위치와 해안을 둘러가면서 설치되어 있는 방호소(防護所) 안 9개 진성의 위치는 붉은 색으로 강조했다. 그 밖에 산악, 도로, 마을이름, 하천뿐만 아니라, 80여 개의 포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포구의 분포를 짐작할 수 있으며, 중산간 지대에 설치되어 있었던 목마장의 경계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⁶⁴⁾ 이와 같은 조선시대의 고지도는 현재의 지도와 비교가 가능하고, 지도를 제작하거나 지도를 통한 문제의 해결 등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호연금서’는 보길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호연한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며 책을 읽는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한라장축’과 짝을 이루는 그림이다. 제주 앞바다에서 화북포로 향하는 목사 일행과 이를 맞이하기 위해 포구에 모인 사람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에서도 주요 내용과 함께 진성이나 주요 포구를 확인해볼 수 있고, 제주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어 지도적 성격도 확인할 수 있다.⁶⁵⁾

63)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24쪽.

64)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20쪽.

65) 이형상, 『탐라순력도』,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1994, 100쪽.

따라서 본 내용의 주제는 ‘제주의 지도’로 선정하고 ‘한라장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제주의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호연금서’를 학습하며 18세기 초 제주의 지도 만들기, 현재의 주요 장소를 선정하여 ‘새로운 한라장축’ 만들기 등의 지도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도의 북쪽과 남쪽의 방향이 다르게 그려진 점에 대한 내용의 학습도 진행할 수 있다.

3) 학습유형 및 접근방법

문화재학습은 문화재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는 학습방법이기 때문에 그 학습 원리와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구현된다.⁶⁶⁾ 문화재학습은 일반적인 다른 교과 수업과는 다르게 문화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내용 및 목표), 문화재의 종류(자료), 학습자 및 교수자(대상), 환경 등에 따라 방법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화재학습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활동들은 크게 학습매체나 학습 환경과 방법 등의 외적요소와, 학습제재 또는 내용 등의 내적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즉, 문화재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문화재학습을 위한 교수매체의 종류 등의 외적요소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학습활동이 가능하다. 동시에 내적요소인 문화재유형에 따라 문화재학습의 유형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탐라순력도』를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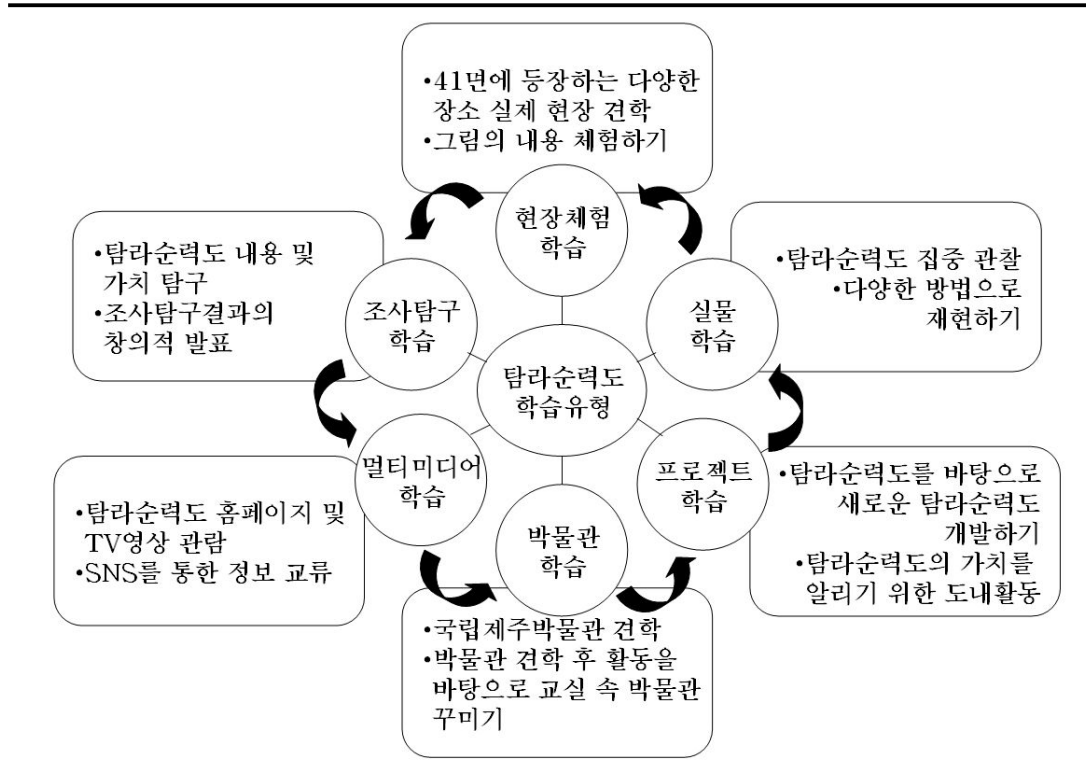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문화재를 학습하는 6가지 유형과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한 가지인 Hooper Greenhill의 특정유물에 대한 7개 요소별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탐라순력도』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탐라순력도』를 문화재 학습의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겠다. 문화재 학습의 6가지 유형이란 문화재 ‘현장학습, 박물관 학습, 문화재 실물학습, 문화재 조사·탐구학습,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재학습, 문화재 프로젝트학습’을 말한다. 다음 <그림 2>는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6가지의 학습유형이다.

66)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초등학교 문화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5, 17쪽.

67)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초등학교 문화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 2005, 19쪽.

<그림 2> 『탐라순력도』의 6가지 학습유형⁶⁸⁾



<그림 2>에서 확인되는 문화재학습의 다양한 유형 중 한 가지가 바로 ‘박물관 학습’이다. 이 학습활동으로 확인 가능한 역사학습은 국립제주박물관에서의 『탐라순력도』 견학과 재현학습 등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학교로 가져가서 교실 내 박물관을 꾸며보는 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박물관 학습’이라고 해서 위에 제시한 유형의 학습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물관에서는 6가지 학습유형을 모두 활용하여 『탐라순력도』를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우선 ‘현장학습’과 ‘박물관학습’은 견학 및 답사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녔고, ‘박물관학습’과 ‘실물학습’은 실제 유물을 본 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영상 및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학습’이 가능하고, 『탐라순력도』라는 문화재의 내용을 조사하고 탐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조사탐구학습’도 병행할 수 있다. 이 모

68) 위의 책, 같은 쪽. 실제 연구 보고서에는 ‘문화재학습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탐라순력도』를 접목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든 활동을 통틀어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프로젝트학습’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화재 학습유형을 ‘박물관학습’이라는 한 가지 유형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유형을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시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⁶⁹⁾으로 유물학습에 접근할 수 있지만, Hooper Greenhill(후퍼 그린힐)의 특정유물에 대한 7개 요소별 통합적 접근방법 즉, 전시품의제작, 재료, 디자인, 기능, 의미, 연계, 기타 등으로 나누어, 다음 <표 7>과 같이 7개 요소별로 세분화한 질문으로 접근할 수 있다.⁷⁰⁾

<표 7> Hooper Greenhill의 7개 요소별 통합적 접근방법⁷¹⁾

구분	접근방법
제1요소(생산)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왜 제작하였는가?
제2요소(소재)	■ 어디로부터 온 재료가 이용되었나? 대체가능한 재료는?
제3요소(디자인)	■ 장식과 기능 중 무엇이 강조 되었는가? 어떤 화풍인가?
제4요소(사용)	■ 언제, 누구를 위해 어떤 이유에서 이용했고, 그에 따른 변화는?
제5요소(의미)	■ 제작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있는가?
제6요소(연상)	■ 개인적 사회적 연계성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연관성은 있는가?
제7요소(다른정보)	■ 관련된 책, 유물, 비디오와 영상물 등 연구 및 콘텐츠는 무엇이 있는가?

69) 유물학습의 다양한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의 내용은 ‘백 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교육』, 예경, 2005’의 90-117쪽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 엘리엇 아이스너(Elliot Eisner)의 6단계 접근방법: 미술교육학자 엘리엇 아이스너는 경험주의적 접근, 형식적 접근, 상징적 접근, 주제적 접근, 소재 중심적 접근, 맥락 주의적 접근을 제시했다.

· 줄스 프론(Jules Prown)의 연역적 접근 방법: 실제 유물의 크기와 재료와 기술에 대한 관찰, 재현내용에 대한 관찰, 평면적 표현과 입체적 표현의 관찰을 비롯하여 감각적 교감, 인지적 교감, 감성적 교감을 포함하는 연역법에 의한 접근방법이다.

· 후퍼 그린힐(Hooper Greenhill)의 다른 유물과의 비교 접근 방법: 전시물과 같은 기법, 공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전시물과의 비교, 동시대의 다른 전시물과의 비교, 재료가 다른 전시물과의 비교, 같은 기능의 다른 전시물과의 비교, 기능의 비교 등 다양한 비교를 통해 폭 넓은 이해와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 가능하다.

70) 백 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교육』, 예경, 2005. 93쪽.

71) Eilean Hooper-Greenhill, 『Museum and Gallery Education』, Leicester Museum Studies,

<표 7>의 질문에 따라 『탐라순력도』를 세분화하여 학습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학습자의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추론 등을 통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내용의 분량이 많고 어려운 용어 때문에 짧은 학습시간 동안에 7가지의 요소를 모두 학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요소를 학습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적용이 가능하며,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요소를 학습할 경우에는 단기적 성격의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화재 학습의 6가지 유형과 Hooper Greenhill의 7개 요소별 통합적 접근방법은 『탐라순력도』를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유형과 7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법을 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다음 2절에서는 본격적으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로 한정하고, 앞서 살펴본 『탐라순력도』의 주제 및 내용을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2.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모형

1) 전시 감상프로그램: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전시감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전시실이라는 공간 내에서 어린이가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핵심인 전시에 감상과 교육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운영대상은 국립제주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어린이 및 어린이 동반 가족이며, 교육담당자의 특별한 안내 없이 스스로 전시실을 감상하며 내용을 익히고 체험하는 활동이 주

London: Leicester Univ. press, p.110; 백 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교육』, 예경, 2005. 93쪽. 재인용.

안점이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몇 가지의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

- 연령대별 내용 및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 단체관람의 경우 활동지의 해결 및 창의활동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프로그램의 안내지와 활동지를 제작하는데 있어 내용의 신중한 선택과 난이도에 맞는 활동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대상인 어린이는 초등학생에 한정하고, 연령대별로 난이도를 조절하여 두 가지 정도의 안내지와 활동지를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3학년(8세~10세)과 초등학교 4학년~6학년(11세~12세)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이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학습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울 수 있어 흥미가 떨어지며, 탐구활동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관람객에게 주어진 시간에 활동을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선 사전에 활동시간을 공지하고 여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본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구현된다.

원래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박물관의 교육담당자와 학예사가 교육을 운영하지만, 본 연구의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는 학습자인 어린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학습이다. 따라서 박물관 전시실 내 안내자와 부모는 어린이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해주거나 궁금증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의 조연자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 학습계획안

프로그램명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	운영시기	상시
		소요시간	60분
		교육장소	탐라순력도실 및 체험관
교육대상	■ 초등학생 어린이 및 어린이 동반가족		
학습주제	■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를 탐구·관찰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안내지를 통하여 탐라순력도실의 전시를 살펴본 후,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전시실 활동을 마친 후에 체험관 내 마련된 탐라순력도 퍼즐 맞추기를 통해 창의활동으로 마무리한다.		
사전준비사항	■ 탐라순력도실 안내지, 활동지 및 필기구 제공		
과정	활동내용	시간	활용교구재
도입	(박물관 중앙홀) 1.안내자에게 박물관 소개받기 2.탐라순력도실 안내지에 따른 활동내용 숙지 3.활동지 및 필기구 제공받기	5분	안내지, 활동지, 필기구
전개 I	(상설전시실 내 탐라순력도실) 1.『탐라순력도』 전시 감상 2.활동지의 문제해결을 통한 이해	20분	활동지, 필기구
휴 식 (10분)			
전개 II	(체험관) 1.『탐라순력도』 그림 퍼즐조각 맞추기 2.퍼즐조각을 완성한 후 내용 떠올려보기	20분	퍼즐조각
마무리	(박물관 중앙홀) 1.설문조사 2.자유 관람	5분	설문지
운영 유의사항	1.자율적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내지에는 전시실 내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둔다. 2.활동시간은 관람객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어린이들의 난이도에 알맞은 활동지를 제공한다.	-	-

<표 8>과 같은 학습계획안을 바탕으로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 목적은 ①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를 탐구·관찰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②18세기 초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은 안내지를 통하여 탐라순력도실의 전시를 살펴본 후,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체험관 내에 마련된 탐라순력도 퍼즐 맞추기 등의 창의활동으로 연계되는 구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프로그램의 자율적 활동을 돕는 안내지부터 살펴보겠다. 안내지는 국립제주박물관의 전시실 및 시설을 약도로 나타내고, 탐라순력도실 등 전시실에서 주의사항⁷²⁾에 대하여 설명하고 프로그램의 순서 및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안내지를 활동지와 함께 구성할 수 있다.

본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활동지이다. 따라서 활동지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탐라순력도』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야 한다. 활동지의 내용은 『탐라순력도』라는 한 가지의 유물만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유물 접근방법 중 후퍼 그린힐의 7개 요소별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내용을 접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앞에서 전시실 내의 활동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였지만, 학습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관찰과 탐구를 통해 문제를 꼼꼼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활동지는 연령에 따라 난이도를 두 가지로 조절하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의식이라도 활동지에는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8세~10세 어린이의 경우, 7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 보다는 교육담당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만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구체화하여 보면 <표 9>와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72)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바꾸기, 진열장에 손대지 말기, 사진촬영 안내에 따라 촬영하기,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말기, 음식물 반입금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표 9>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의 활동지 구성내용


번호	관점	활동문제와 예시 대답
1	생산	(문제) 『탐라순력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나? (대답) 1702년 제주에서 이형상목사의 순력했던 내용을, 이듬해 화공 김남길이 그림을 그려 완성하였다.
2	소재	(문제) 『탐라순력도』의 소재는 무엇인가? (대답) 종이와 비단으로 구성되었다.
3	디자인	(문제) 『탐라순력도』의 생김새는 어떠한가? (대답) 화첩의 크기는 가로 35.5cm×55cm, 도면의 크기는 30cm×29.5cm 이고, 표지는 청회색 무늬의 비단이다.
4	사용	(문제) 『탐라순력도』를 제작한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 이형상 목사의 관아와 성읍, 군사시설의 점검과 더불어 군사시설과 지형 및 명승지와 풍물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5	의미	(문제) 『탐라순력도』는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가? (대답)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와 성읍, 군사 등의 시설과 지형 및 풍물에 관한 갖가지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어, 제주지방의 역사적 연구에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6	연상	(문제) 『탐라순력도』의 내용에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는가? (대답) ‘감귤봉진’에서 귤을 고사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병담범주’에서 관리들은 연회를 즐기고 해녀들은 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등에 대한 자유 토론
7	기타정보	(문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다른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답) 탐라순력도 문화콘텐츠 홈페이지의 만화, 동영상, 노래와 제주목관아지의 탐라순력도체험관 등을 통해, 『탐라순력도』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위의 <표 9>에 제시하는 내용은 대상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며, 특히 5번 의미에 대한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6번 연상에서는 학습자의 역사적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소재를 제시하여 다양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7번 기타정보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방법과 제주목관아지의 답사 등을 제시하며 박물관

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 <그림 3>은 실제 어린이들이 활용 가능한 활동지의 예시로, 대상에 따라 같은 문제라도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제시한 활동지는 1번에서 ‘생산’과 ‘기타 정보’의 관점을, 2번에서 ‘디자인’과 ‘의미’의 관점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그림 3>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의 활동지 예시

8세-10세용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앞)	11세-13세용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앞)
<p>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p>	<p>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p>
이름: _____	이름: _____
<p>1.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1702년 제주목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한 바퀴 돌며 『탐라순력도』를 그리게 하였습니다. 나는? ()입니다.</p>	<p>1. 『탐라순력도』 동영상을 감상해봅시다. 『탐라순력도』는 ()년에 ()목사에 의하여, 서문 () 면, 그림()면, 총 ()면으로 구성된 화첩입니다.</p>
<p>2. 다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봅시다.</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제목은 무엇인가요? () 제주도는 왜 거꾸로 그려져 있을까요? ()</p> </div> </div>	<p>2. 전시실에서 다음 그림을 찾아봅시다. 오래된 제주도 지도로, 제주도의 북쪽과 남쪽이 바뀌어 그려졌습니다. 제목은 ()입니다. 현재 제주의 행정구 역은 2개의 시로 구성되었지만, 조선시대 에는 ()목()현으로 구성되었습니다.</p>

위에 제시한 활동지는 어린이의 학습발달 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교과과정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는 지역사의 학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지의 사례 구성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체계화 하는 데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을 활동지에 추가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글씨체 및 디자인은 추가적인 요소이다.

전시실에서 활동지를 통한 학습을 마친 후에는 체험관으로 이동하여 『탐라순력도』의 그림 퍼즐조각을 맞춰보는 활동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그림 4>와 같이 체험관에서 퍼즐조각을 맞추며 완성된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는 활동으로 탐구활동은 마무리 짓는다.

<그림 4> 체험관 내 『탐라순력도』 퍼즐조각 체험



퍼즐은 『탐라순력도』의 41면의 그림을 하나씩 맞춰보거나, ‘한라장축’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알맞은 장면을 맞춰보는 형태 등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41면의 그림을 하나씩 맞추어보는 퍼즐은 각 장면을 자세히 탐구할 수 있고, ‘한라장축’을 중심으로 지역별 위치를 찾는 퍼즐은 『탐라순력도』 각 장면의 장소성과 전체적인 형태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험관에는 이 외에도 『탐라순력도』 장면에서 기념사진 촬영하기, 정의고을 재현하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어 다양한 활동을 추가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교육프로그램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는 상설전시실 내 탐라순력도실과 연계하여,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Hooper Greenhill의 7개 요소별 통합적 접근방법을 『탐라순력도』에 적용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지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탐구 및 체험활동을 통해, 무의미하게 지나쳤던 『탐라순력도』가 어떤 역사적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보물로 지정되었는지 살펴보고, 18세기 초 조선시대 제주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탐라순력도』의 가치를 학습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초등학교 연계프로그램: 박물관에서 만난 탐라순력도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두 번째 제안하는 것은 공교육과 박물관교육이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박물관에서 만난 탐라순력도’이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에 우리고장과 지역을 학습하는 단원이 있는 3학년과 4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박물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문화재 조사·탐구학습과 재현하기 등의 실물학습도 가능한 점을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교육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은 탐라순력도실에서의 전시감상활동과 체험관에서 유물재현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다.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기 전에 학교담당자와 박물관의 교육담당자는 사전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소, 날짜 등을 조율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 프로그램은 학급단위와 학년단위 중 어떤 단위로 운영할 것인가?
- 유물재현활동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협동으로 진행할 것인가?

실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대단위의 방문객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인력부족, 공간의 협소함 등에 따른 제약이 있다. 하지만 박물관에는 대부분 학년단위로 방문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전시를 감상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학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박물관은 학년을 다시 몇 그룹으로 나누고 활동도 몇 가지로 나누어 순환 학습을 통해 모든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박물관에서 만난 탐라순력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학년단위와 학급단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물재현활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협동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의 성격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다.

<표 10> '박물관에서 만난 탐라순력도' 학습계획안

프로그램명	박물관에서 만난 탐라순력도	운영시기	3월~12월
		소요시간	100~120분
		교육장소	탐라순력도실 및 체험관
교육대상	■ 초등학교 3~4학년 학년 및 학급단체		
학습주제	■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를 탐구·관찰하며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재현활동을 통해 『탐라순력도』의 다양한 장면을 재해석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탐라순력도실에서 『탐라순력도』를 탐구·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체험관에서 『탐라순력도』를 재해석하여 다양한 미술방법으로 표현하는 창의활동으로 마무리한다.		
사전준비사항	■ 탐라순력도실 안내지, 활동지 및 필기구 제공, 미술도구 등 준비		
과정	활동내용	시간	활용교구재
도입	(박물관 중앙홀) 1.안내자에게 박물관 소개받기 2.활동내용 숙지 3.활동지 및 필기구 제공받기	10분	안내지, 활동지, 필기구
전개 I	(상설전시실 내 탐라순력도실) 1.『탐라순력도』 전시 감상 2.활동지의 문제해결을 통한 이해	30분	활동지, 필기구
휴 식 (10분)			
전개 II	(체험관) 1.『탐라순력도』 중 인상 깊었던 장면 선택 2.미술표현으로 『탐라순력도』 재해석 3.작품설명	50~70분	점토, 종이, 물감, 석고 등 다양한 재료
마무리	(박물관 중앙홀) 1.설문조사 2.자유 관람	10분	설문지
추후활동	1.완성된 작품을 학교로 가져간다. 2.41개의 작품을 전시할 장소를 선택하고, 전시를 기획한다. 3.작품전시를 마친 뒤 다른 학급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쉬는 시간에는 전시해설 활동도 수행한다.	-	-

본 프로그램의 학습계획안에서 전개 I 에 해당하는 내용은 앞서 제안한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의 활동내용과 같으며, 단체별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시간에 10분 추가하였다.

전시실 활동과 더불어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은 『탐라순력도』를 미술활동으로 재해석해보는 것이다. 학습자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선택하여 다양한 미술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한 학급의 인원이 40명일 경우에 『탐라순력도』 41면의 그림을 공통되는 것 없이 한 가지씩 선정하여 모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학교담당자 및 박물관 교육담당자가 조율해야 한다. 모두 다른 장면을 선택하여 원하는 표현방식으로 재구성함에 있어서도, 그림과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탐라순력도』를 재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체험 후에 작품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설문조사를 끝으로 박물관에서의 활동은 종료된다.

<그림 5> 『탐라순력도』의 미술적 재현활동의 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교래대렵</p> <p style="text-align: center;">獵 大 來 橋</p> 	<p style="text-align: center;">지점토 목걸이 만들기</p> 	<p style="text-align: center;">재해석</p> <p>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래대렵’에서 군사들이 사냥을 하는 장면이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하나씩 확대해서 지점토로 만들어 표현해보고 싶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건포배은</p> <p style="text-align: center;">恩 拜 浦 巾</p> 	<p style="text-align: center;">스크래치 기법 그리기</p> 	<p style="text-align: center;">재해석</p> <p>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무속신앙이 발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형상목사는 신당과 사찰을 다 불태워버렸다. 신앙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았을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을 ‘건포배은’으로 다시 그려보았다.</p>

본 프로그램은 추가적 활동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진행되는 재구성에 초점을 두면, 학습자는 완성된 작품을 전시할 장소 및 공간을 선정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다른 학급의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쉬는 시간마다 정해진 학습자가 전시해설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양하게 표현된 41면의 『탐라순력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실제 운영에 있어 학급단위의 방문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표 10>의 학습계획안과 같이 운영할 수 있으나, 학년단위의 방문객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두 그룹(A, B)으로 나누어 A그룹은 <표 10>의 전개 I 활동을 경험하고, B그룹은 전개 II 활동을 경험한 후에 반대로 다시 다른 활동을 경험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공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인 ‘박물관에서 만난 탐라순력도’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역사학습 부분에서 요구하는 정치사 및 문화사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여 탐구하고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학교담당자와 박물관 교육담당자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혹은 학교의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교재로 운영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롭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공교육과 더욱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사회과 및 역사수업 중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박물관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자율 참여프로그램: 우리는 탐라순력대!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세 번째의 제안은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우리는 탐라순력대!’이다. 최근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성격을 갖고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1기, 9월부터 11월까지 2기로 구성하였다.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심화과정으로 『탐라순력도』에 대한 관찰과 탐구 및 창의활동을 운영한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골고루 체험하기 위해서 상반기는 초등학교 1학년~3학년(8세~10세)으로, 하반기는 초등학교 4학년~6학년(11세~13세)로 한정되었다.

자율 참여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날짜를 정해 참가신청을 받되, 참가신청서에 제주의 역사학습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탐라순력대’ 40명을 결성하여 활동하도록 구상하였다. 이러한 접수 방법은 기존에 학부모의 강압적 권유로 인해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를 줄이고 관심과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을 분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몇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 ‘탐라순력대’를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탐라순력도』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관심과 흥미가 높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운영하는 만큼, 교육담당자는 학생들의 조사 및 탐구활동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수업이 운영되는 최대한 자율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18세기 초 문화재인 『탐라순력도』를 통해 현재 제주의 새로운 『탐라순력도』를 찾아내어 제작해봄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탐라순력도』의 제작배경과 내용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각도의 관점을 통해 현재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 기에 선발된 40명의 어린이를 제주의 ‘탐라순력대’라고 지칭하고, 3개월간 총 6차에 걸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탐라순력대’로써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재인식하여 역사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학습계획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우리는 탐라순력대!’ 학습계획안

프로그램명	우리는 탐라순력대!	운영시기	(1기)3~5월 (2기)9~11월
		소요시간	2·4주 토요일 10:00~12:00
		교육장소	탐라순력도실 및 체험관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8세~10세 어린이 40명 ■ (하반기) 11세~13세 어린이 40명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라순력도』를 통해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21세기 新탐라순력도를 제작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된 40명의 어린이를 ‘탐라순력대’라 지칭하고, 3개월간 『탐라순력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답사,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新탐라순력도를 제작하여 발표한다. 		
사전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교재 『탐라순력도』 영인본 및 매 차시 활용교구재 참고 		
과정	활동내용	시간	활용교구재
※제1기, 제2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강, 우리는 탐라순력대! 1.대표 및 팀장 선출 (4개 팀으로 구성) 2.제주 역사에 대한 나의 관심과 흥미 이야기 하기 (프로그램 참여 동기 이야기) 	50분	PPT, 참가신청서
	휴식	10분	-
1차 (3월 2주, 9월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 1.『탐라순력도』란 무엇일까? 2.탐라순력도실 활동지 문제해결 (활동지는 전시감상프로그램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 활용) 3.『탐라순력도』에 대한 내용정리 	50분	활동지, 필기구
	정리 및 다음 차시 학습 안내	10분	-
※제1기, 제2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사, 『탐라순력도』를 찾아서-목관아지 1.제주목관아지 집결 2.학예사와 함께하는 목관아지 견학 및 해설 (『탐라순력도』 속 제주목관아 찾아보기, 내용 이해하기 등) 3.탐라순력도 체험관 (영상관람 등) 4.사진촬영 등 자유 활동 (활쏘기, 목판체험) 5.내용정리 	120분	필기구, 카메라 등

과정	활동내용	시간	활용교구재
※ 제1기 3차 (4월 2주)	■ 이론 1. 『탐라순력도』 속 행사 장면 알아보기 (제주전최, 건포배은)	30분	PPT, 필기구
	휴식	10분	-
	■ 체험 1. ‘건포배은’의 재해석-연극으로 꾸미기	70분	필기구, 연극소품 등
	정리 및 다음 차시 학습 안내	10분	-
※ 제2기 3차 (10월 2주)	■ 이론 1. ‘진상’이란 무엇일까? 2. 『탐라순력도』 속 ‘진상’ 장면 찾아보기 (감굴봉진, 공마봉진) 3. 조선시대 한양과 제주의 관계 이해하기	40분	PPT, 필기구
	휴식	10분	-
	■ 체험 1. ‘진상’과 관련된 장면 재해석 2. 지점으로 ‘감굴봉진’ 혹은 ‘봉마공진’ 재현하 기(부조 및 채색으로 액자 제작하기)	60분	나무판, 지점토, 물통, 조각칼, 붓, 물감, 니스 등
	정리 및 다음 차시 학습 안내	10분	-
※ 제1기 4차 (4월 4주)	■ 답사, 『탐라순력도』를 찾아서-용연 1. 용연에서 집결 2. ‘병담범주’의 내용 및 장소성 이해, 전설 듣기 3. 사진촬영 4. 과거의 용연과 현재의 용연 비교해보기 5. 제주도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6. 내용정리	120분	필기구, 카메라, ‘병담범주’ 확대그림
※ 제2기 4차 (10월 4주)	■ 답사, 탐라순력대 제주를 지켜라!-방어유적 1. 국립제주박물관 집결 2. 사라봉 사라봉수 및 별도봉 별도연대 견학 3. 3성 9진, 25봉수 38연대의 의미와 내용이해 4. 사진촬영 5. 내용정리	120분	필기구, ‘화북조점’, 카메라 등

과정	활동내용	시간	활용교구재
※ 제1기, 2기 공통 5차 (5월 2주, 11월 2주)	■ 이론 1.내가 이형상목사라면? 2.新탐라순력도에 넣고 싶은 제주의 다양한 모습 생각하고 발표하기	30분	필기구, PPT
	휴식	10분	-
	■ 체험 1.내가 화공 김남길이라면? 2.생각하고 정리된 장면을 다양한 미술 방법으로 표현해보기 3.新탐라순력도 제작- 24세기, 제주의 후손들에게 보내는 역사적 자료 만들기	70분	종이, 채색도구, 찰흙 등 다양한 미술도구 및 재료
	정리 및 다음 차시 학습 안내	10분	-
※ 제1기,2기 공통 6차 (5월 4주, 11월 4주)	■ 종강, 우리는 영원한 탐라순력대! 1.新탐라순력도 전시회 준비 및 개최 2.소감발표 및 다과회 3.정리	120분	PPT, 新탐라순력도, 다과, 수료증 등

본 교육프로그램의 학습계획안은 대상연령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내용을 설정하였다. 상반기에 운영되는 '제1기 우리는 탐라순력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차시에는 '탐라순력대'의 창단식을 갖는다. '탐라순력대'에 지원하게 된 계기 혹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알고 있는 『탐라순력도』 그림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탐라순력도』에 대한 명확하고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전시연계학습을 진행하고, 체험관으로 돌아와 『탐라순력도』를 재정리 시간을 갖는다.

2차시에는 답사학습으로, 제주목관아지에서 집결하여 목관아지 내 학예연구사와 함께 답사하고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학예연구사의 해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알맞게 쉽고 재미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탐라순력도 체험관'에서 『탐라순력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및 영상 관람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진

촬영으로 『탐라순력도』의 장면과 현재의 목관아지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3차시에는 『탐라순력도』의 그림 중 '행사'가 주제가 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교육담당자는 『탐라순력도』의 41면의 그림을 화면으로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행사장면을 선택해보는 것이다. 선정한 장면 중 교육담당자가 제시하는 '건포배은'이라는 내용을 연극으로 표현해보며, 조별로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연극을 꾸며볼 수도 있다.

4차에서는 두 번째 답사활동으로 조선시대 관리들이 풍류를 즐기던 '병담범주'의 용연에서 집결하여 답사학습을 운영한다. 우선 『탐라순력도』중 '병담범주'의 관찰을 통해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당시 제주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과거 관리들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주제이지만, 그림 속에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 등을 통해 일반 서민의 생활상을 이해해보고, 또한 그림 속 용연의 모습과 현재 용연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다른 장소를 서로 이야기해보며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5차에서는 추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학습자 스스로가 과거의 '이형상 목사'와 '화공 김남길'이 되어보는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우선 내가 '이형상 목사'라면, 현재 제주의 어떤 곳을 『탐라순력도』에 담고 싶은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후에 내가 '화공 김남길'이라면, 본인이 생각한 장면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고민한 후에 직접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한다. 표현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며,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교육담당자가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新탐라순력도'는 후대의 또 다른 『탐라순력도』와 같은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미 있는 현재의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동기 유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차는 3개월의 활동을 총정리 하는 시간으로 종강 및 전시회를 운영한다. 학습자들은 새롭게 제작한 新탐라순력도를 박물관 전시실에 적절히 배치하여 전시하고, 전시설명을 해줄 수 있다. 또한 3개월의 활동에 대한 느낀 점, 앞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을 약속하며 영원한 '탐라순력대'로써 역할을

충실할 것임을 선서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다음으로 하반기에 운영하는 ‘제2기 우리는 탐라순력대!’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상반기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는 1차, 2차, 5차, 6차를 제외한 3차, 4차에 대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우선 3차는 주제별 학습을 위하여 ‘진상’을 주제로 학습을 구성하였다. 교육담당자는 학습자들에게 『탐라순력도』의 41면 그림을 보여주고 학습자들은 ‘진상’과 관련된 장면을 찾아본다. 이후 진상의 의미, 18세기 초 제주의 진상물품, 진상을 통해 한양과 제주의 관계를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또한 연령대가 1기보다 높기 때문에 심화학습의 형태가 가능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2> ‘제2기 우리는 탐라순력대!’ 3차시 심화학습내용

관련내용	소주제	관련장면	학습내용
진상	제주에서 한양으로 보낸 굴	감굴봉진	1.한양으로 굴을 보내기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2.진상한 굴의 종류는 무엇인가? 3.황감제(黃柑製)란 무엇인가? 4.왜 제주인들은 진상을 위한 굴나무를 일부러 죽였을까?
	제주에서 한양으로 보낸 말	공마봉진	1.한양으로 말을 보내기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2.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말이 진상되었는가? 3.차사원(差使員)이란 무엇인가? 4.내가 조선시대로 간다면, 어떤 용도로 말을 진상했을까?

위 <표 12>과 같은 내용은 모둠을 나누어 각각 조사하게 한 후, 발표수업으로 조사내용을 공유하며 토론할 수도 있다.

체험활동으로는 ‘진상’과 관련된 장면을 재해석하여 ‘공마봉진’ 혹은 ‘감굴봉진’을 지점토를 활용한 부조 및 채색으로 완성한다. 이 때 교육담당자는 부조에 필요한 지점토, 칼, 나무판, 채색도구 등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평면적

그림으로 표현된 탐라순력도와 또 다른 느낌으로 양각과 음각을 표현하며 『탐라순력도』를 학습자의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4차는 '탐라순력대, 제주를 지켜라!'를 주제로 『탐라순력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방어유적을 답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집결하여 '화북조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라봉의 사라봉수와 별도봉의 별도연대를 답사하고 교육담당자는 현장에서 3성 9진, 25봉수 38연대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여 학습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에 방어시설이 발달하게 된 이유, 『탐라순력도』에 군사시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본 교육프로그램의 학습계획안은 대상연령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특징은 국립제주박물관만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탐라순력대!'를 경험한 학습자가 늘어가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자주 경험할 수 없는 이론, 체험, 답사, 전시라는 활동으로 역사학습에 흥미가 높아지며 특히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18세기 초 제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문화상을 그림과 기록으로 정리한 『탐라순력도』를 기반으로, 어린이의 지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탐라순력도』의 내용과 가치를 살펴보고 기존에 운영한 『탐라순력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모형을 제안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순력도실에 전시하고 있는 보물 제652-6호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를 그림과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는 물론 제주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이에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대상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탐라순력도』의 정의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수준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제주의 역사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탐라순력도』의 풍부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요소를 적용하여 박물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은 8세에서 13세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역사학습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가장 활발하게 현장에서의 문화재 실물학습과 체험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박물관에 방문하는 어린이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꾸준히 교육 참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경우 사회과에서 고장과 지역을 학습하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과 박물관교육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탐라순력도』의 41 장면(서문 제외)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상과 내용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6가지 실제 문화재 학습유형을 통하여 『탐라순력도』를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아울러 Hooper Greenhill의 7개 요소별 통합적 접근방법에 따라 『탐라순

력도』의 배경과 내용, 의미, 소재, 현재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운영 가능한 세 가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째,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 속으로’는 전시감상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탐라순력도실과 연계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다. 학습자는 감상과 활동지 문제 해결을 통하여 『탐라순력도』를 탐구·관찰하고 추체험을 경험하며 과거를 상상할 수 있다. 또한 18세기 초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과, 체험관의 퍼즐 맞추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흥미롭게 『탐라순력도』의 그림과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둘째, ‘박물관에서 만난 탐라순력도’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사회과 정규교육과정 내 고장과 지역과 관련된 단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활동지 학습 후 실물재현에서 『탐라순력도』를 재해석하고, 추후활동으로 교실 내 박물관을 꾸밀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역사학습에서 요구하는 정치사 및 문화사 위주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담당자와 박물관 교육담당자의 교류와 공교육과 박물관의 긴밀한 관계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우리는 탐라순력대!’는 최근 주5일제 수업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른 비정규교육기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내용은 3개월 간 매월 2주·4주에 2시간씩 『탐라순력도』의 주제별 이론과 체험, 답사 등을 병행하며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한 해에 총 2기가 운영되며, 연령별 맞춤 학습으로 8세부터 13세의 어린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접수는 서류의 내용을 통해 ‘탐라순력대’를 선발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내용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18세기의 『탐라순력도』를 바탕으로 ‘新탐라순력도’를 제작하여 또 하나의 역사적 자료를 남기는 특별한 경험에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문화상을 기록한 『탐라순력도』를 기반으로,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제 국립제주박물관에 적용

하였을 때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제주박물관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탐라순력도』는 국립제주박물관의 대표적인 전시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탄탄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교육프로그램은, 타 박물관과 차별화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확대할 수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탐라순력도』를 다양한 학습유형으로 구성한다면, 조선시대 제주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내용이 담긴 『탐라순력도』를 통하여 제주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8세기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추체험하며 역사적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탐라순력도』는 그림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그 가치는 무한정하며, 깊은 관찰과 유추를 통하여 역사적 추체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학습에 적합한 흥미와 사고를 배양하고 실감나는 역사를 이끌어내는 동기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지역 문화재를 통한 학습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줄 것이다. 또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공교육과 연계가 가능한 역사학습의 공간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이 체계적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모형이 국립제주박물관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어린이들의 역사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이형상,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제주특별자치도 影印, 2008.

2. 단행본

강인애(편), 『박물관교육의 가능성』, 문음사, 2011.

강인애 외, 『박물관교육의 다양성』 문음사, 2010.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교육의 새로운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2007.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5.

국성하,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혜안, 2007.

김나영 외, 『콘텐츠 개발의 현장』, 푸른사상, 2011.

김영관 외, 『博物館 資料의 蒐集과 管理』, 서경문화사, 2001.

김영순·김 현 외,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2006.

김오순, 『탐라순력도 산책』, 도서출판 제주문화, 2001.

김은석·정광중·류현중, 『지역과 사회과교육』, 제주대학교출판부, 2010.

백 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2005.

서울교대 박물관미술관 교육연구소, 『생각을 여는 미술활동』, 예경, 2010.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2000.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 입문』, 북코리아, 2006.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9.

제프리 E. 밀스, 강성우 외,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 우리교육, 2005.

최용규 외, 『초등 교사를 위한 사회과 역사 수업 가이드 살아있는 역사 수업』, 2009.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 한국박물관교육학회, 문음사, 2010.

최종호,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I·II』, (사)한국박물관협회, 2000.

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티모시 앰브로즈·크리스핀 페인, 이보아, 『실무자를 위한 박물관 경영핸드북』, 학교재, 2001.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박물관 100년사:자료편』,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박물관협회, 2009.

3. 논문

고정숙, 「초등학교 사회과의 현장학습을 위한 장소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접지코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2010.

김란영, 「제주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학습 방안-중학교 사회과 1학년 지역탐구 단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2007.

김동전, 「제주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6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03.

김동전,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문화사학』 제30호, 한국문화사학회, 2008.

김호중, 「사회과 현장체험 학습과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2003.

배성수, 「인천의 역사교육과 박물관의 역할」, 『교육문화연구』 제3-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

송현정, 「문화재를 활용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서울역사박물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전공, 2009.

유원근,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본 박물관 활성화 방안-원주지역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09.

윤정현, 「문화재 현장학습이 초등학교 역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11.
- 이숙경, 「제주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07.
- 이영신, 「지역 박물관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국립광주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교육연구』 제4호,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10.
- 이은미, 「한국박물관의 교육적 가능성 탐색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전공, 2003.
- 이종혁, 「문화재 답사를 통한 초등역사 수업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과교육전공, 2010.
- 이지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와 박물관 활용의 연계방안」,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10.
- 장재훈,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04.
- 정재엽,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TV 다큐멘터리 비교 연구; ‘제주 고대사’, ‘곶자왈’, ‘탐라순력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전공, 2009.
- 장호수, 「문화재 활용론-활용의 개념과 범주에 관하여-」, 『인문콘텐츠』 제7호, 인문콘텐츠학회, 2006.
- 최성열, 「초등사회과에서 향토사자료의 활용을 통한 애향심 신장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사회교육전공, 2003.
- 한지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06.

4. 교과서 및 기타

- 국립제주박물관, 『2011 선생님과 함께하는 박물관 문화연수』, 국립제주박물관, 2011.
-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사회 3-1』, 2012.

-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사회 3-2』, 2011.
- _____, 초등학교 『사회 4-1』, 2012.
- _____, 초등학교 『사회 4-2』, 2011.
- _____, 초등학교 『미술 3학년·4학년』, 2012.
- _____,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
- _____,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2009.
- 양건열, 『국립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제주시,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본 濟州牧使』, 제주시, 200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4-1』, 2011.
- 탐라문화보존회, 『탐라순력』 창간호, 사단법인 탐라문화보존회, 2000.
- 한국역사교육학회, 『지역과 역사교육』 제13회 전국학술대회, 한국역사교육학회, 2011.
-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초·중학교 문화재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2005-2006년 문화재청 위탁 연구과제 답신 보고, 문화재청, 2006.

5. 관련 웹사이트

- 국립제주박물관 <http://jeju.museum.go.kr/kr/>
-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http://jejuro.go.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사이버 삼다관 <http://www.jejusamda.com/>
- 제주목관아 <http://mokkwana.jejusi.go.kr/>
- 제주의 역사와 문화 <http://goodteacher.jejunu.ac.kr/>
- 탐라순력도 문화콘텐츠 홈페이지 <http://tamnamap.jejusi.go.kr/>
-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http://curri.mest.go.kr/>

Abstract

Development of children's education program in Jeju
national museum using 『Tamnasullyeokdo』

Han Eun-mi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hildren's education program in Jeju national museum based on 『Tamnasullyeokdo』 and to expand children's interests and concerns about learning of regional history. 『Tamnasullyeokdo』 is not only an important picture to reproduce a particular space of Jeju in 1702, but it also has a superior value as a picture to illustrate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the culture of Jeju. In order to use it for educational purpose,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development model of education program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museum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amnasullyeokdo』 and extracting the educational elements.

Jeju national museum is displaying the original of 『Tamnasullyeokdo』 and operating education program utilizing it. However, since the education

program utilizing 『Tamnasullyeokdo』 being operated mainly deals with the overall meaning of cultural property, it has one lament for understanding the specific facts included in it. Therefore, in order to eliminate this, a separate specialized museum education program utilizing 『Tamnasullyeokdo』 is needed. In this study, target age is limited to 8-13 years old and the development model of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depending on age is present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in Jeju national museum utilizing 『Tamnasullyeokdo』. Based on this, three education programs which can be operated in Jeju national museum are developed.

First, ‘into the Tamnasullyeokdo, a treasure of Jeju’ is the program in a form of appreciating exhibition and it is a self-directed learning which can be linked to ‘room of Tamna sullyeokdo’. Learners explore and observe 『Tamnasullyeokdo』 through appreciation and solving problems of activity sheets and they can experience reenactment and imagine the past. Second, ‘Tamna sullyeokdo that I meet in the museum’ is the program linked to elementary school and it can be associated with chapter related to my town and region in regular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at 3rd and 4th grades. The contents are constructed in which 『Tamnasullyeokdo』 is reinterpreted through reproduction of real item after learning the activity sheet and the museum can be built in the classroom with further activities. Third, ‘we are the squad of Tamnasullyeokdo!’ i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program and it is the program developed with reflection of expectation of educational role of non-formal education institution as 5-day class a week has been enforced. The contents are constructed in which theory, experience and exploration by themes of 『Tamnasullyeokdo』 are conducted for 2 hours on the 2nd and 4th weeks every month for 3 months and children can learn the details of history and culture of Jeju.

When education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s actually applied to Jeju national museum, the educational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take the

place as a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in the Jeju national museum. Second, interests and concerns about learning community history can be expanded. Third, children can experience reenactment of various appearance of Jeju in the 18th century and it can promote the historical imagin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bring the effect of motivation to draw the realistic history through concrete theory, experience and exploration of 『Tamnasullyeokdo』. In addition, learning through local cultural property nurtures the pride about the area and education function of museum can contribute to provide the space of history learning which can be linked to public education. Likewise, as children participate in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in the museum, they can experience various activities to interestingly understand the culture of region and continue the history.

It is expected that development model of education program utilizing 『Tamnasullyeokdo』 presen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takes the place as a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in Jeju national museum and it gives the positive effect on history learning to children.